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畜馬의改良增殖

一

元來 朝鮮은 農業이 主業이오 農業에는 自古로 반드시 소(牛)를 使役하엿든關係上 朝鮮의農業과 畜牛는 아주 不可分離의것이 되여버렷다 그러므로 當局의 指導方針도 農業發展의 助長上으로보나 또 日本內地移出의 必要上으로보아 自然 畜牛를 積極的으로 奬勵하게되여 種牡牛를두어 一便 品質改良을 圖謀하는 同時에 耕牛低利資金制度를 創設하야 그增殖을 꾀하엿다 그런데 馬에對하야서도 그間 여러가지로 試驗과 硏究를 싸허온것이 事實이지마는 엇떠든 畜牛奬勵에 比하면 그 政策은 遲遲不振의 狀態를 免치못하야 昭和十年에 일으러서 비로소 內地의 馬政第二次計畫에 對應하야 昭和十一年度부터 同二十八年度까지의 十八年間을 期限으로하는 馬政第一期計畫이 樹立되엿다 이計畫은 大槪 四百頭의 種牡馬를 두어가지고 朝鮮馬의 品質을 改良하며 그와 同時에 輓馬 乘馬役馬를 各各 地方에따라 生産分布 시키는것이 그眼目인 모양인데 事變後 昨今의 馬畜需要激增의 事實에 비춰보거나 지난八月 새로 樹立된 內地의 馬政計畫要綱에 比하면 晩時의嘆이 업지아니하다 그러나 問題는 過去의不敏을 後悔하는데 잇는것이 아니즉 今後의 對策을講求하면 足하다。

二

朝鮮農夫는 元來 愛畜心이 豊富할뿐아니라 그氣候와 風土가 또한 牧畜에 適當하다 朝鮮軍獸醫部의 調査에 依하면 平南北 咸南北 黃海의 五道는 地質이 石灰質이여서 萬一 여기에 牧馬를 한다고하면 石灰質을 含有한牧草로 骨格이 優秀한 名馬를 産出할수잇다는것이다 이調査의進展에 따라 西北一帶뿐이 아니고 朝鮮全道가 地方에 따라 各各 品種을 달리할法은 잇서도 全地域이모다 畜馬에 適當하다는事實이 判明될것으로 밋는다 萬一그러타고하면 朝鮮은 畜馬하는데 必要한 條件을 가추가추 具備하엿다고 할것인데 다만 最後의 重大한 問題는 畜馬의 經濟上 問題이다 말은 乘用으로 소보다 나흔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輸役에도 輕速하야 實用되고 잇다 그러므로 만일 耕作에잇서서 소에 지지아니하고 商品價値에잇서서 소보다 낫다고하면 增馬計畫은 容易히 成功될것이다。

三

그러므로 馬政計畫의 要點은 말이 從來 朝鮮農家의 거이 唯一한 勞役家畜인 소의 勞役을 代身할수잇고 또 經濟的으로 利害게하는데잇다 이러케되면 若干의 指導로써 能히 그目的을 達할것이다 産業上으로나 軍用上으로 畜牛가 決코 말에 그다지 뒤떠러질바아니지만 現下의 時局으로보면 畜馬는 또畜馬대로 必要한것이 事實이즉 이方面에 一層注力하여야할것은 不可避의 事情이다 現在朝鮮內의牛馬頭數로보더래도 소는 百七十萬頭에 가까운데 反하야 말은 겨우五萬頭에 不過하며 그것도 在來種이 大部分이므로 馬政計畫의 目標에는 멀리 어긋나는바 만타고할것이다 一言而蔽之하면 要는 畜馬가 産業上에 잇서서는 絶對不可缺의 家畜이 되고 一旦 有事之秋에는 國家의 所用에따라 그需要에 應하면 足할것인즉 이點을 明確히 考察하야 方針을 進行시키면 이計畫은 多大한成績을 어들것으로보인다。

全國民衆에告하는書發表

蔣、抗戰意識强調

指久抗戰、全面戰爭力說

【上海一日發同盟】武漢陷落에 依한 徹底的敗戰事實은蔣政權治下의 民衆에 絶望的 不安과 深刻한 動搖를 이르키어蔣政權은 只今軍事的으로만이아니라 思想的重大危機에 瀕하게되엿는데 이事實에 狼狽한 蔣介石은 覺者國民參政會에 멧세지를 보내어 抗戰方針을 明確히 하고 다시 三十一日附로써 『全國民衆에 告하는書』를 發表하야 絶望에 빠진 國民에 對하야 抗戰意識의 再燃을 强調하야 꿈이야기하드시 最後의 勝利를 主張하엿는데 그要旨는다음과갓다

第一、我同胞는 모름지기 目前의 戰果와 武漢特質의 關係를 認識하지안코는 안된다 我國抗戰의 根據는 元來沿江沿岸의 交通淺狹地帶가 아니라 廣大深長한 內地이다 따라 西部各省은 我國抗戰의 策源地이다 이것이 長期抗戰의 根本的方針이고又終始一貫變하지안는 政府의 政策이다 敵의廣州侵入에依하야粤漢線의交通이 遮斷된 今日 武漢은 一般的行政上의重要性이顯著히 削減되엿스므로 自發的으로 武漢三鎭을 放棄하엿스나 敵이消耗한 期間은 五個月에며처서 死傷數十萬을 算하엿다 이리하야 그가어든곳은 焦土가아니면 空城이엇다 今後 全面抗戰은 到處에서 發展하고 戰爭은새로 展開된다 敵에게는 一物도 엇게하여서는 안된다 我同胞는모름지기 今番兵力의移動은 我方이防守로부터 抗戰에轉하는機會로서 抗戰을徹底히하고 敗을轉하야 勝을어드려할것을 認識하야 決코이것으로써 退却을意味하는것이라고 誤解해서는안된다

第二、我方은지금銘記하여야한다 抗戰을開始할時이미 一貫한方針은決定되여잇다 그方針은 第一持久抗戰、第二全面戰爭 第三主動的地位의 獲得이다 그리고 抗戰勃發以來主로 이方針에基하엿고 又今後에도 變함이업다 今次戰爭은 民族戰爭의 特質과 國民革命의使命을갓는다 革命과戰爭이란것은財政、經濟 武器 禦寒等犧牲의 數에 依하야 制限되는것은아니다 革命戰爭에 時間은업다 戰爭目的을 達成한時비로소戰爭은終結된다 同胞여!局面의 變化에依하야 抗戰의決心에動搖됨에잇서서는 안된다 今日부터 다시 勇猛戰鬪 全面戰爭과抗戰根據地擴充에 努力하야써 最後의勝利를 獲得하라 同胞는 最大決心으로써 民族開放의 徹底를期하라 國家存亡抗戰의 價値는實로이에잇다

粤漢線不通으로

支那側西貢經由路線計畫

【上海一日發同盟】我海의荒蔽의結果 國府側은 此等滯貨를 特別猛爆에依하야 八月上旬粤漢線이不通하게된 以來 香港에는 蔣政權에게보낼武器가날로 滯貨하고잇다 그리고 廣東攻略의 結果傭船에依하야 佛領印度支那의海防佛國租借地廣州灣으로 輸送을開始 이때문에 佛領印度支那로 가는 蔣政權의 武器는 益益만 어저가고잇다 그런데 雲南鐵道起點인 佛領印度支那海防은 船着設備도 나쁘고 荷役도不便할뿐더러 雲南鐵道及 河內昆明間自動車轉送力은 거의 飽和狀態에 達하야 이路線은 日本側의 눈을避할수업다는 理由에서 方今西貢經由의 路線을 計畫中이라한다

文案作成마라 臨時閣議開催

【東京電話同盟】武漢三鎭陷落을契機로하야 發表하기로된 帝國政府의 聲明案文은 別項과如히 一日午前의定例閣議에서 決定을보지못하고 風見書記官長의手許에서 各方面의意見을參酌하야 文案의再調整을 行하기로되엿는데 政府는 今日午後二時乃至三時에臨時閣議를開催하야 右文案을 附議하야 正式으로 決定하기로되엿다 그리고右聲明은 三日의明治節을期하야 發表할方針이다

中伏鋪占領

【朱家灣一日發同盟】寺垣部隊는 一日午後八時 粤漢線蒲圻東北約十키로의 中伏鋪를占領하엿다

要人全部逃走로 廣東新機關組織難

【廣東一日着同盟】廣東市는 去二十一日皇軍入市以來 日本憲兵과 一部警備隊에依하야 治安이 維持되엿는데 廣東軍當局이 年餘에 亘하야 日本軍은 무섭다 民衆에게 거르쳣스므로 이 逆宣傳이 民衆에게 根底기피浸透되야 百二十萬市民中比較的下層階級만이 殘留하고重要人物은 大部分逃走하엿기때문에 新機關設立에 자못困難한 狀態에잇섯다 그런데 占領旬日 最近에 至하야 漸次皇軍의 眞價를認識하게되여 一部의人士에 依하야 民衆自衛團이 組織되여 日本軍指導下에 市內警備에 當하고잇다 이民의掠奪防止에 當하고잇는 自衛團은 新政府發展의 萌芽가되여 이윽고 治安回復과 함께治安維持會의 成立을보리어며廣東廣西가 한뭉치가되여 南支政府에까지 發展하리라고보고잇다 廣東은革命發祥地라고하나 廣東廣西間도反目이 자못長久하고廣東軍은陳濟棠政權沒落後 中央號令에 服從하여왓스나 昨年陳濟棠擧兵之時에 그部下의 余漢謀가 蔣介石에 內通하얏스므로 蔣의 中央工作이 行하게되엿는데 以前의歷史的關係로보아도 南支新政權誕生까지에는 相當한迂餘曲折이 잇슬것이나 蔣政權沒落에 依하야廣東의經濟的回復治安回復과 相俟하야그成立은 必然일것이다 그리고이南支新政權은 北中支를合하야 支那統一新政權이 誕生될境遇當然그傘下에 加할것으로觀測된다

倉林部隊 長江埠를占領

【漢口一日發同盟】三十日夕刻京漢線南端의 要衝孝感에 內薄하야 四方으로부터 集結中의 敵約三千을 擊退하고 同城及城外飛行場을 占領한 倉林部隊는 孝感西方一里의 長江埠에 殺到 三十一日夜 이를 占領하엿다 長江埠는 我京漢線南下部隊에 쫏기어 雲夢方面으로부터 潰走하는 敵部隊와 黃陂로부터 潰走中인 李品仙麾下의 廣西軍과가 京漢線을 너머 西方으로 逃走하는 ... 我倉林部隊는 ... 二千五百에 達하는 大損害를 주엇다 同部隊는 一日朝來敵을 追擊하야 附近一帶를 淸掃中이다

河南省內殘敵 南陽附近에集中

【石家莊一日發同盟】大別山附近에서 頑强한 抵抗을 계속하던 敵軍은 廣東漢口의 陷落에 따라 士氣가 阻喪하야 그一部는 我軍의 猛進擊을 避하야 西方으로 潰走 그一部는 信陽西北南陽附近에 集結 次期作戰에 備한다고 稱하고 支那軍은 糧食의 强奪、靑少年의强制徵募等 惡辣한 行爲를 敢行하야 南陽을 中心으로 河南西部地區民衆의 反感을사서 漸次反蔣化하는 氣運이 濃厚하게되엿다 又支那軍은 漢口陷落後 日本軍은 반드시 漢水를따라 來襲、南陽의 死命을 制하고저 老河口를 占領할것은 必至라는 恐怖心에서 부터 最近 信陽으로부터 南陽에 새로 移轉한 河南省政府를 內鄕에 移하야 一部機關을 洛陽에다서 옴기는等 狼狽하고 잇다 그리고 黃河北岸에 殘存한 敵 第九十一軍 第百六十六、第四十五師는 漢口廣東陷落에 依하야 戰意를 全然喪失 恐怖를 느끼고 물다르어 退却 黃河를 渡河하야 方今 南陽附近으로 集結中이다

中國聯合委員會 第二次會議日程

【南京一日發同盟】二、三兩日에 開催될聯合委員會第二次會議의議事日程은 臨時維新兩政府代表及關係方面에서協議한結果 大體如左히決定되엿다

▲二日午前中
一、議長推薦
二、議長開會宣言及日程討議
三、反共救國宣言에關한件
四、聯盟加盟에關한件
▲二日午後
一、宣言決議
▲三日午前中
一、前回會議報告의審議討議
二、反共救國全國代表會準備會報告
三、次回開會時期及議題
三、宣言發表

政友會臨時代行委員會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 四日午後三時부터 芝三緣亭에서 臨時代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全國支部長及有力者要望에依한 總裁決定에 關하야 協議키로되엿다

"統一政權出現은 自然的趨勢" 臨時政府王揖唐氏談

【南京一日發同盟】臨時政府內政總長 王揖唐氏는 二日夜의聯合委員會에 臨함에 압서서 今日行政委員長 王克敏氏에 代身하야宿舍에서 統一政權問題에對하야如左히말하엿다

今番武漢陷落은 東亞歷史上極히重大한 意義를 가지고잇는것으로 友邦日本의 赫赫한武勳은 世界的으로 빗나는것이다 東洋의前途는 반드시明朗하게되여 우리가 所期하는目的을達成할날도 머지안케되엿다 第二回聯合委員會가 廣東及武漢陷落後 開催하게된것은 實로 時宜를 得한것으로 廣東及武漢地方은 陷落한日字가 새로워서 新政權은아직出現치 아니하얏스므로 今回聯合委員會에서는 此等地方의 加入은 아직議題에 오르지안흘것이다 蒙疆地方에 對하여서는 參加案이 提出되여잇스므로 今回委員會에서 決定할것이다 元來 이聯合委員會는 中華民國政府의 委員會이므로 將來한 統一政權이出現할 뭉치가되여 自然趨勢일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臨時政府及維新政府는 兩方이다 닷에比하여 말하면 이미다서 새빨가케되엿고 다른한덩이숫은 반밧게 타지아니하엿다 그러므로 今後는 아직빨아케피지아니한숫을 速히태워서가티 타도록해가는 氣景을次次로 醵成치안흐면 안된다 이空氣가 醵成된때에 비로소 中央政府가 成立될것이라고생각한다 爲先 北支、中支의特殊性을認定하고 各各의 政府우에 統轄的共通事務를擔當할 議해각이 日支雙方을 爲하야 便利하리라고생각한다

廣東、武漢陷落으로 武器輸入에危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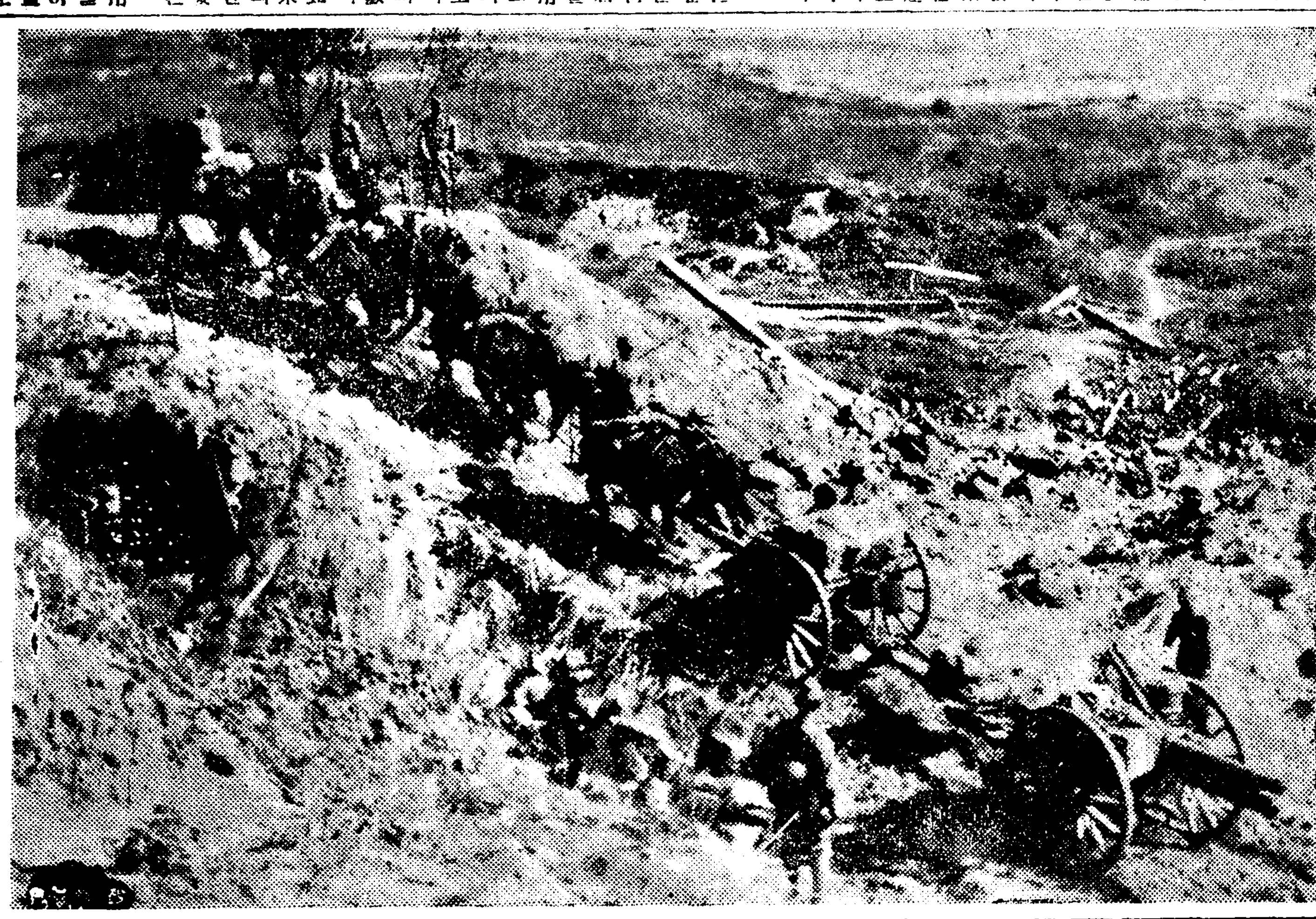
蔣政權、蘇聯邦에泣訴

064034

皇軍의 神速한 進擊에依하야 武漢三鎭이드디여 陷落되야 支那事變에劃期的 時期를劃하엿는데 蘇聯의對支政策及 對日政策은 이를契機로 如何히變化될것인가? 蔣政權은 從來一部에서는 英國에依賴하고 他方에서는 蘇聯에依賴하야 抗日策戰을繼續하여왓는데 廣東이 陷落되야 英國으로부터 唯一한 武器輸送路가切斷되야 蔣介石에게 重大死命을 制하게된지 一週日만에 또漢口가陷落되야 蘇聯의對蔣援助에 非常한危機를 주게되엿다 卽 蘇聯으로부터 新疆을 通하는 對支援助通路는 漢口陷落後에는 非常한威脅을 밧게되야 從來와가티 活潑한活動은不可能하게되엿다 蘇聯의對支援助는 物資軍需品、軍事指導者와精神的援助와에 分類되는데 今後蔣政權이 奧地로遁入되야 一地方政權으로된 今日蘇聯의 對支物資援助는 極히微微한것이 되지안을가한다 그러나 武器供給이 거의 杜絶될것이라 생각하는것은 錯誤로確實한側에서入한情報에依하면 孫科는 三次莫斯科를訪問할 模樣이며 今回의訪蘇는 말할것도업시 漢口陷落後의 蘇聯의 對支物資援助에 關한協議가目的인것으로 觀測된다 一方蘇聯은 廣東攻略戰으로써 支那事變의 軍事行動에 잇서서의 最頂點이라는 見解를가지고잇서 이狀態를 延引시키는것이 對日政策의 모든根底를 形成하는方策을 取할것이다 이미 極東軍의 改組는이 時期에 잇서서의 蘇極東軍備의 强化를 目的한것이며 偶然 張鼓峰事件에 依하야 蘇聯赤軍의 實力이 一部暴露되엿다고는하나 蘇聯當局을 自身의缺陷을 是正하려고 非常한努力을 하고잇는 模樣이允分히 觀察된다 따라서 極東軍의充實은 今時에잇서서의我對支政策에對한 모든方面에서 行하는蘇聯의妨害와 一脈相通하는點이 잇는것은 勿論 日蘇關係의紛糾는 一層深刻하게될것이다

下條賞勳局總裁等 戰跡視察次渡支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側에서는 叡慮 金鵄勳章敍賜條例의 改正을 吩咐하옵시어 賞勳局은 忠烈한將兵의 勳功에對하야 第六回까지의 行賞을 行하엿는데 下條總裁는 다시 宇部宮書記 大出理事官 陸軍省柵橋中佐 海軍省染北少佐等 一行과 가티 滿洲、北支、中支方面의戰跡視察을 하기爲하야 來六日午後三時 東京發 福岡에서 飛機로 渡支하기로되엿다 同總裁는 三週間豫定으로 北支로부터 滿洲及 張鼓峰事件의 戰跡까지 視察한다음 今月下旬 歸東할豫定인바 歸東한다음 繼續하야 論功行賞을 行할豫定이다 또 來十五、六日까지에는 滿洲事變의 第二次第三回의 論功行賞發表가 잇게되엿다



險路를突破코德安城으로 進擊하는 ○○部隊

政府의聲明文案 最後的調整完了

三日發表同時에首相라디오로放送

【東京電話同盟】武漢陷落에 依한 事變新段階에 處할帝國政府의態度를表明하는 重大聲明文案에 對하여는 一日의定例閣議에附議하야 愼重을期하기위하야 再調整을 行하기로決定하고 同日午正부터首相官邸에서 風見書記官長을 中心으로 陸軍影佐軍務課長、佐藤情報部長 海軍岡軍務局第一課長藤井中佐、外務省井口情報部第一課長、田尻書記官等關係當局이 審議하야 成案을 得하엿스므로 午後二時부터 臨時閣議를開催하야 右文案에 對하야 最後的檢討를加한 結果 結局二、三字句의修正을한後 原案을承認하고 細部에 一任하야는 五相會議에 一任하기로한後 同五時三十分散會하엿다 그리고 近衛首相、池田藏相、有田外相、板垣陸相、米內海相은 그대로남어잇서서 協議한 結果 一切의調整을 終了하엿스므로 곳위를이어 參議會를 開催하야 承認을 得하야 이에 聲明文案은 드디여 正式으로 決定되엿다 近衛首相은 二日宮中에參內上聞에達한後 三日에 發表하게로되엿다

【東京電話同盟】武漢三鎭陷落에 依하야 事變의 新段階에處할 帝國政府의 重大聲明은 來三日明治節佳節을 期하야 中外에 公表하게되엿는데 發表와同時에 近衛首相은 長期建設에 對한國民의 覺悟를 새롭게하기위하야 特히 午前九時十分부터 十分間AK의마이크를通하야 全國民에 呼訴하게로되엿다 AK에서는 同放送을 錄音하야 更히 午後七時半부터 豫定의 憲政制定五十週年記念座談會를 中止하고 更次全國民에게 首相의 獅子吼를放送할터이다

五台、靈石山地서

山西殘敵을完全殲滅

【東京電話同盟】陸軍省情報部發表 北支山西方面軍은 從來로 北支治安의 癌이던 五台附近의共産軍剿滅에 對하야 周到한 計畫을樹立하고잇던바 去九月下旬부터作戰을 實施하야 京漢 正太 同蒲 京綏의 四線에 圍繞된山岳地帶의 掃蕩을 開始하엿다 먼저 北京西方及 懷遠平地方面으로부터作戰을 開始하야 逐次作戰을西方及 南方에 及케하고包圍圈을壓縮하야 五台附近山地에이를驅入한後 石家莊太原及 大同方面으로부터 이를完全히 包圍하야 마침내 十月下旬이를 靈石五台의 山地에 追擊殲滅하엿다 敵은 聶榮臻 楊成武 呂正操及 金憲章이 引率한 抗日軍과및 共產軍約五萬이엇다

寺垣部隊 朱家灣占領

【朱家灣一日發同盟】武漢으로부터 히몰려潰走하는 敗敵을急追中인 寺垣部隊는 繼續하야 粤漢線을前進 一日朝來 長陽大追擊을開始하야 官塘驛、張家嶺、洪山寨等을 占領 一日午後四時지나 朱家灣을完全히占領 蒲圻縣城까지 僅僅二十里의 地點에 肉迫하야 士氣는 去益旺盛하다

孝感은交通上要衝

【漢口一日發同盟】○○部隊는三十日夕倉林部隊가 京漢線上의要衝孝感을占領한것을 一日公表하엿다 孝感은漢口西北約五十粁의 地點에잇서 人口가 一萬四五千假量되는縣城으로 京漢線上의 要地로서 鐵路에依하는外에 水路로서도 亦是長江에 通하는 水利의便을 가젓스므로 敵은이곳에 飛行場을 設置하엿다 그리고同地는 附近一帶의 農産物集散地이다

三水西方서 敵逆襲砲艦擊沈

【東京電話同盟】大本營一日午後四時發表=十月二十九日午後 敵砲艦二隻은 商船隊와 함께 三水西方으로부터 下航하야 我陣地前二千米에서 停船砲擊을 開始한바 我軍은 그二隻을 擊沈한後 이를上流에 擊退하엿다

蘇체互援條約廢棄?

蘇聯邦外交孤立化

蘇聯의 歐洲外交界에 잇서서의 退勢는 체코問題를 契機로 하야 急速히 濃化하야 蘇聯外交政策으로서 그基調가 되여잇던 集團的安全保障主義는 完全히破綻을示하고 또英佛과 提携하야 蘇聯對外工作의 有力한 根據가 되여잇든 相互援助條約도 드디여 廢棄의運命에 빠지려하고잇다 卽 프라하로부터의 情報에 依하면 체코駐在蘇聯大使 엥·엘게·알렉산드로프스키는 二十二日 체코外務省을訪問、蘇체코互援條約의廢棄를 通告하엿는데 체코로서도 一九三五年에 締結된 蘇聯과의 協約에 今後束縛됨은 現下의 諸情勢로보아서 到底히 不可能하야 同國으로서도 勿論바라는바이다 그리고 체코와가티 佛國도 近近蘇聯과의條約을 廢棄할것이라고 보고잇다

國民協力을要望

池田藏商相談話發表

【東京電話同盟】池田藏商相은 三日政府의 重大聲明後 漢口陷落後의 長期建設에 對處할 財政經濟政策에 關하야 藏商相談을發表할 豫定인데 藏商相으로서右談話에서

一、爲替水準堅持
一、生産力擴充
一、貿易振興
一、物價騰貴抑制
一、消費節約
一、貯蓄奬勵

等 戰時財政經濟政策을 繼續實施할 必要가잇서 今後도 經濟統制는 强化되리라는 同時에 今日以上에 緩和될일이업을터이므로 國民은 益益時局의 重大性을 認識하야 堅忍持久長期建設에 邁進할것을 要望하야 國民各層의 協力을 要望할意向이다

政友會幹部會 一日午後開催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 一日午後一時부터 總務會 同二時부터 幹部會를 開催하고 島田代行委員 其他各總務、砂田幹事長以下 在京幹部出席 東亞再建國民運動에 關하야 第一議員倶樂部、社大、東方等小會派가 參加를 拒絶해온것 來十五日日比谷에서 第一聲을 擧할것 一日의 近衛首相과의 會見顚末에 關한 詳細한報告가 잇슨後 志賀和多利顧問으로부터 總裁問題에 關하야 三十一日의 支部長有志實行委員과 代行委員及 總務와의會見內容을 報告하라고 希望하엿스므로 砂田幹事長의 報告가 잇섯다 更히 『代行委員會及 總務會에서는 可及的速히 總裁候補의 單一化를 꾀하야 總裁를 設置할 方針을 가지고 努力하고잇다』고 答하엿다 右에 對하야 志賀顧問은 다시 『時局重大之秋에 眞實한擧國一致가 國民에 要望되는 此際 黨內一致도되지안코 또總裁도 決定하지아니함은 國民에對하야未安한일이라고 생각한다 代行委員會總務會及 幹事長은 此際에 一身同體가되여 虛心坦懷 總裁詮衡에 當하야 如何한 方法으로 總裁를 設置할가 하는方針을 次期幹部會에서 報告하게하라고 希望하고 午後二時半 散會하엿다

地方職員定員增加

總督府地方待遇職員定員은 地方各道一般事務의 增大와伴하야 官制를 改正한結果 如左히 增員되엿다

	增員	改正定員
土木書記	六	九五
社會書記	一	二四
土木技手	五	四〇五

그리고 關係道別로보면 如左하다

一、慶南은 中小河川改修에 關하야、土木書記二名
一、全南은 社會事業擴充과 光州府에 社會書記一名
一、二三等道路修築工事 慶州 馬浦港灣修築工事에 關하야 土木書記二名
一、咸北에 잇서서는 漁港修築工事에 關하야 土木書記一名 技手五名

그리고 府에 잇서서는 定員을 充當하게된 關係上 京城府에서는 土木書記六名減 京城 新義州에서는 社會書記各一名減 光州同一名增 京城에서는 土木技手三名 仁川에서는 同二名이減員되엿다

夕刊後市況 一日

◆各地期米後止◆

大邱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群山 當限 三三·六五 中限 三三·六六 先限 三三·四三
木浦 [illegible]

◆各地商品後引◆

福井人絹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辭令

(平南內務部長)總督府道事務官 白石光治郞
任總督府遞信事務官(三等)
命遞信局電氣課長
總督府中樞院書記官兼總督府事務官 野世溪閑了
任總督府道事務官(三等)
命平安南道內務部長
(平北地方課長)總督府道理事官 大久保濟和
任總督府事務官(七等)
命內務局勤務
(全南地方課長)同 小泉 弘
任總督府中樞院書記官兼總督府事務官(七等)
命內務局勤務
(社會課長)總督府事務官 柳生 繁雄
兼任總督府中樞院書記官(三等)
命內務局地方課長
(內務局地方課)同 林 勝壽
命內務局社會課長
同 西岡芳次郞
免內務局地方課長兼務
總督府專賣局副事務官 小野 文質
任總督府事務官(六等)
命農林局勤務
(京畿外事警察課長)同 阿部 泉
任總督府事務官(六等)
命警務局勤務
(全南警務課長)同 片山 一郞
任總督府事務官(七等)
命財務局勤務
(財務局)總督府屬 張 壽吉
任總督府事務官(七等)
命財務局勤務
(殖産局)同 田所 榮
任總督府事務官(七等)
命總督府官房資源課勤務
(審議室)同 吉本 强
任總督府事務官(七等)
命殖産局勤務
(全北警務課長)總督府道警視 井手 勇
任總督府警察官講習所敎授兼總督府事務官(六等)
命警務局勤務
總督府警察官講習所敎授 渡邊 敏郞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命慶尙北道在勤
總督府專賣局屬 澤瀨 諒介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命全羅南道在勤
總督府平安北道屬兼警部 加藤 和夫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命全羅南道在勤
總督府屬兼京畿道警部 星出 壽雄
任總督府道警視兼總督府警察官講習所敎授
命京畿道在勤
(慶北醫務課長)總督府道警視 田村 仁榮
任總督府事務官(六等)
拓務事務官 杜 琥淳
命殖産局在勤
總督府屬 渡邊 鎮雄
任總督府道理事官(七等)
命全羅南道在勤
總督府道理事官 濱口好太郞
命平安北道勤務
(慶南宣傳部)總督府郡守 金 熙 德
任總督府事務官(七等)
命慶尙南道勤務
總督府慶尙南道屬兼府屬 盧 永 斌
任總督府郡守(七等)
命慶尙北道宣傳部在勤
總督府慶北道警部兼道屬 出口 茂七
任總督府專賣局副事務官(七等)

本社參觀

▲慶南部北亭常小學校兒童四二名(金有文氏引率)
▲市內開運寺中央佛敎研究院生二三名(李東勳氏引率)

人事·集會

▲北村謙雄氏(全北警察部長)病室 扶斯羊 數日前부터 入院加療中

毛髮의
生死의鍵은 비타민F에잇는것입니다
비타민F의 缺乏은?
ポマードならメデカ
포마-드면은
비타민F配劑의
メデカ
ポマード
藥用 純粹植物

本品은學理에基한製法에 依하야 專賣特許權을有함

明春府議等改選期에 選擧規則大幅改正

戶別訪問等의慣例를嚴禁取締하며 人口比例로議員定數도增減

명년오월이십일일에는 각지방 자치기관의 의결기관인 전조선십사부(府)를 비롯하야 칠십사읍(邑)과 이천이십오면(面)의 의원(議員)을 일제히 개선하게되엇다 이와가티 전조선부, 읍, 면의원을 일제히 개선하는 것은 명년오월이십일일로써 임기가 만료되는고로 전반적 개선을 단행하는것인데 총독부에서는 이 의원개선을 계기로 부, 읍, 면의원 선거규측의 전면적 개정을 단행하기로되엇다 이 선거규측은 소화오년에 개정한후 이래 십년동안 별다른 변화가업시 그대로나려와서 그런데 십년동안 조선의실정은 교육, 문화, 산업행정 기타 사회전반에이르러 실로 비약적대발전을 보이고잇는현상이므로 십년전에정한규측은 현하 실정에 도저히 맛지안는다는것이다

이제 그개정에 대한 내용의 일단을 듯건대

一、각부, 읍, 면의 인구비례에 의하야 의원정원의 증감을 단행할것

二、의원을 선거할때 호별방문을 하는 악폐를 엄금하는동시에 이에관한 취체방침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할것

三、종래의원의 피선거자격은 사월일일현재 만이십오세로 하든것을 오월이십일일현재 만이십오세로할것

四、종래의 피선거자격은 사월일일현재 만일개년 거주자에 한하든것을 오월이십일일현재 만일개년거주자로 개정할것

대개와 가튼내용을 중심으로 선거규측을 개정할 모양인데 특히 주목되는것은 선거운동 취체규측을 상당히 엄중하게 정하야 종래가티 호별로 차저다니면서 한표식 두표식 구걸하든악폐를 일소할방침인즉 이에 호별방문을 엄금하는것은 조선지방자치행정대의 원천거사상에 일대회기적 대영단이다 그런데 이호별방문은 단지금 회에 한하는것이 아니라 이에대한 타하겟다

京城商工會議所議員 昨日에選擧戰終幕

一級은無競爭、二級에二名落選

경성상공회의소 의원선거전은 일일오후네시까지에 투표를 맛치엇는데 일급은 유권자 삼백삼십오표중에 투표한사람이 삼백삼십오표이오 기권자는 사십구표로 기권률이 일할사분팔리이고 이급유권자는 삼천이백륙십일표중에 투표가이천이백십팔표로서 기권자는 구백사십삼표로서 기권률은 이할팔분구리에 달하야 기권률이 전회보다 만엇는데 무효는일급에 칠표 이급에삼십이표이엇다 오후다섯시에 이급부터개표한결과 일이급의 당선자씨명은아래와가타다

▲一級=投票總數三三五票有効投票三二八票 無効投票七票

票數	氏名
三五	新田義民
三一	內山寬正
二九	株式會社伊藤商行(代表伊藤壽一)
二八	山本正三
二五	二宮常一
二四	田中三郎
二四	龍山工作株式會社(代表田川常治郎)
二二	東洋畜產興業株式會社(代表賀田直治)
二二	合資會社和平堂藥房(代表 李東善)
二〇	都賀康三
二〇	朴永根
一四	邊相昊
一三	吉岡定次郎
一三	京城菓子株式會社(代表[illegible]貞市)
一〇	松浦齊生

▲第二級=投票總數 二、二二八票 有効投票 二、一八六票 無効投票 三二票

票數	氏名
當選	
二〇三	堀內滿輔
二〇二	伊藤東作
一九八	河野又一
一七八	梅澤友七
一五九	合資會社安藤電氣商會(代表者 山崎新)
一五九	共同貿易株式會社(代表 金圭冕)
一五七	京城타이시式會社(代表者 野村謙二)
一三一	中央商工株式會社(代表者 李斗用)
一二五	吳東燮
一一四	關根金作
九五	洪种裕
九五	孫完榮
九三	中外物產株式會社(代表者 酒井政之助)
九三	株式會社松田酒商店(代表者 松田 淸)
七九	合資會社同志社(代表者 金萬壽)
次點	
七二	合資會社信一製粉所(代表者 韓萬熙)
四三	徐昌圭

이상과 가타야 조선인후보자 일급삼명, 이급팔명중에 일급은 경쟁이업서 전원이 당선되고 이급팔명중에 한만희, 서창규양씨가 락선되어 당선자는 일급에 삼명 이급에 육명을 합하야 구명이 되어서 총의원삼십명중 조선인이 구명으로 되엇다

〃靑年의修練道場〃

百濟古都扶餘에設置키로되어 明年豫算에十萬圓計上

내선일체를 근본정신으로 조선 각부군의견실한 발전의 선구기관인 중견청년(中堅靑年)의 양성은 조선현하의 가장긴요한것으로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반시설을 여러가지로연구한결과 조선청년의 수련도장(道場)이라고 할만한 중견청년훈련소를 역사적으로 유서기픈 백제고도(百濟古都) 부여(扶餘)에 설치하고자 명년도 예산에 그경비 약십만원을 요구하얏든바 일전에 재무국의승인을어덧슴으로 마침내 구체적준비에착수하기로되엇다 이훈련소는 전조선각도로부터 중견청년중의 젊은사람중에서삼백명을 입소시켜가지고 사개월간의훈련을 시킨다 그리하야일개년에 도합구백명의 훈련생을 사회제일선으로 보내는것이다 그리고 학무국에서는이와병행하야전조선각군을 단위로군단보국대수련도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약팔십만원의 예산을요구하얏든바 이것은재무국의 사정관문에서 "스톱"을 당하고마럿다

天道教時局行事

全敎徒에要項을配布

시내경운정 천도교중앙종리원(天道敎中央宗理院)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에서 각가맹단체에 반포한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강령과그실천요목을 일반신도로하여금 일층더철저히 실행시키기위하야 오는십일월삼일명치절(明治節)의봉축식을 성대히 봉행케하라는동시 또는이번의명치절을기하야 회기적으로 실천의 원만을기하기위하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강령급 실천요목과 『아침마다궁성요배하시다』의 인쇄물과 그실천요항을 가주워 각지교회기관에 발하엿다

馬鼻疽

陽德에猖獗

작삼십일일경무국에 드러온보고에의하면 평안남도양덕군(平南陽德郡)내에서는 마비저(馬鼻疽)병이 요즘만연되어서발병된말 육십일두를 격리시키고 방금전염계통을 조사중인데 이병이평양(平壤)방면으로 만연될염려가잇스므로 평안남도당국에서는그 예방에노력중이다 이마비저병은한번 말이걸리기만하면 꼼짝 못하는 무서운 전염병이므로 총독부 위생과에서는 중서촉탁(中西囑託)이 전염계통을 조사하며 예방을지휘하고자 일일아츰급히현지에 출장하엿다

쌀갑이또오른다!(한키로에 五厘式)

쌀갑이 또올랏다! 부내 공설시장에서 나라갑이 비싸진것을이유로 일일부터 백미소매갑을 각종에 오리식올려 다음과가치결정하엿다

多摩錦	特等	一키로	二七錢
〃	一等	〃	二六錢
普通	一等	〃	二五、五錢
鮮白米	一等	〃	二四錢

동나는蓄音機!

製造禁止後在庫도말나버려 業者悲鳴과팬의失望

제조금지바람에 축음기도 한목끼이게되여 그동안 새로 만들지는못하고 재고품으로 그럭저럭꾸며나가기는 햇스나 금년겨울을 채넘지못해서 동이날염려가업지안허 악기점과 축음기팬들의 걱정이 자심하다한다 이제 그사정을 드러보면 철강제품과동품 일백삼십종류에대하야 지난팔월십오일부로 상공성령으로 제조금지령을하엿는데 그가운데에 축음기는 물론 축음기바늘까지 드러잇서 일체 새로만들지못하게 되엿고 오직 부속품의 가공제조만은이개월유여기간을 부처주엇든것이 이유여기간마저 지난시월십사일로써 마금이 되여버려 그후부터는 겨우해외수출용 축음기 약간만이 제조가허가되여잇슬뿐 국내용은 부속품 운운할것업시 전혀 만들지 못하게되엿다 그래서 각제조회사에서는 하는수업시 재고품을 가지고 모면해나갈수박게는 업게된 셈인데 재고품이래야 한도가잇는지라 더구나 약간의재고품도 내지에서 먼저가로채게되여 조선에는 차레가못오는형편이다 경성에잇는 여러유력악기점에서 하는말을 들어보면 지금가진 재고품으로서는 올겨울을 채넘지말지할 형편이라고한다 이때문에 시내 각악기점에서 머리를썩이고 잇다는데 다행히 『레코-드』만은 제조금지에 들지안엇슴으로 『레코-드』는 그다지 걱정이업다 한다

[illegible] 하고 [illegible] 한 [illegible] 구역부터 시내각 [illegible] 장정(?) 공작 여적(?)을 계획하고 [illegible] 오늘인 조선의 반도 외에도 [illegible]

臟品分配會議

少年竊盜團捕縛

우숙한 숲속에서 지전뭉치를 산떼미가티쌋노코 분배회의를열든 소년절도단육명이 용산서원에게 일망타진되엇다 삼십일일오후세시반경 용산서원이 부내 아현정(阿峴町)아현소학교뒤산을 순찰할지음 숲속에 소년들이 몰켜잇슴으로수상히 여기고 달려가보니 소년 여섯명이 지전뭉치와 구두 시게등속을 산떼미가티 쌋노코분

西湖島强盜事件

公判期日決定

작년십일월칠일밤 부외 서호도리(西湖島里)에서 홀로잇던 내지인노파빈전(濱田)『도모에』를 버드나무몽둥이로 때려죽엿

安東省肅淸工作

着着進捗、治安回復

【安東一日發同盟】 안동성(安東省)의 치안은 일만양군의 꾸준한 숙정공작으로 최근차차로 회복되어가고잇다 지난시월중의 비적출몰은 모두소규모여덜번 연인원백사십팔명인데 대개가 군소비적이오 만흔것이겨우 열두명일단이엇다 각현별로 출몰회수는 다음과갓다

岫巖縣二六 安東縣 無 莊河縣一八 鳳城縣五七 寬甸縣一二 桓仁縣二九

赤心의獻金

장고봉(張鼓峰)사건때에 총후국민으로서 황군을위하야 활동한 함북경성군민의 공헌의 외에 한국공락의 황군의 위안에 감격한넘어 사소한것이지만 성심을바친 헌금을하야 관계당국을 감격케하고잇다 즉함북경성군경성면(咸北鏡城郡鏡城面)서흥동(西興洞) 오단중(吳端仲)은 장고봉사건때 숫의 손료로받은 오십전을 그대로 헌납하엿고 동면동화서흥동(東和西興洞)농민일동은 사건당시수둔부대에서 야채를제공한갑스로 삼십원받엇는데 전부헌금하엿다 한다

仁川珠算競技

【仁川】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부회와의공동주최인 제삼회전선주산경기대회는 다음과 가튼 요항에의하야 오는 십일월 인천공회당에서 개최키로되엇다

一、期日 十一月十九日

一、參加資格 第一部銀行會社、官公署勤務者 第二部個人商店

一、申込期日 十一月十二日

一、申込所 仁川商工會議所

그런데 경기종목, 방법기타상세 사항은 전기주최측에 문의하기를 원한다고한다

女辯護士登場

法規改正以後로嚆矢

【東京電話同盟】 소화십삼년 변호사시험에 여자세명이 합격되엿다 일일오전열시 사법성에서 발표된 변호사합격자는 이백사십이명으로서 그가운데는 명대회 법과출신 구미애자(久米愛子)(三〇), 무등가자(武藤嘉子)(二七), 전중정자(田中正子)(二八)등 삼명의여성이끼여서 여성을 위하야 만장의기염을 토하엿는데 소화십일년변호사법개정이후 처음으로보는 여자변호사로서 흑법의가 법정에서 부르지게되엿다

映畵會도開催

【金浦】 김포군에서는 지난사실일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김포분회총회를 이용하야 당일오후두시부터 군청광장에서 영화회(映畵會)를 개최하엿다는데 정각전부터 운집한 관중은 무려이천여명에 달하야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엇다 그영화는 시국에 적절한영화이엇슴으로 일반관중에 만흔감격을주엇다

加俸

航空關係職員에

총독부에서는 조선항공사업(航空事業)의발전 촉진에대비하고자 총독부와 그소속관서 항공종사자에 대하야 내지와가티 가봉을지급하기로 결정하야 명이일총독부령으로 발표실시하기로 되엇는데 항공관계사 가봉은

一、甲額 航空從事職員에 對한金額

一、乙額 乘務員에 對한金額

등두가지로 구분하야 지급하기로되엿다

◇乙額月額

奏任官	六〇圓	乙三〇圓
判任一等	四〇圓	二〇圓
判任二等	三〇圓	一五圓
雇傭人	二〇圓	一〇圓

▲日額은 月額의 十分之一

그리고 특히위험하다고 생각되는항공근무 야간비행시험오천미돌이상으로 삼십분이상의비행 일백키로이상의 해상비행낙하산(落下傘)시험비행 항공교육키위한 특수비행등에는 다시가봉을증액하고 또항공근무중 상병을밧는경우에는 치개월동안을 이상 가봉의 반액을지급하기로 되엿다

〃히도노미찌〃敎

瀆職事件公判

【大阪電話同盟】 백만의 신도를 가지고 일세의 호화를 자랑해오든 요교(妖敎)『히도노미찌』(人之道)교단도 재작년가을 대적거로 일거에 괴멸되여버렷거니와 검거선풍의 단초가되다시피 되여잇든 독직사건만은 이와는따로히 분리시켜 일일오전열시반부터 대판(大阪)지방재판소에서 석정(石井)재판장주심으로 심리를 시작하엿는데 어보도 독직사건에대한 심리만으로 마치엿다 이날출정한 피고는 정원(正元)여수(御厨)서장인 택촌삼희남(澤村三喜男)외이명(以上收賄)도합여서명이엇는데 이날 심리는 대정십사년에 교단이 도복구코 동교단이 그러케까지 이상하게 비약적인 발전을가지게된 이면의 추잡한 사실의폭로이니만치 일반의흥미를자아내엿스나 방청객도의외로적어 법정은 꽤오나 쓸쓸하엿다 그리하야 연회한 삼목(三木)검사의 공소사실진술이 끗나기를 기다려 심리는 진행되엿는데 오후영시반에 잠간쉬엿다가 오후에 다시 속행하엿다

沙里院沈村間의複線工事着手

卅一日에地鎭祭擧行

【沙里院】 복선공사중에잇는 경의선중 사리원(沙里院)침촌(沈村)간 약삼십키로간의 복선공사는 얼마전에 내전조(內田組)에게 낙찰되여 방금 공사착수준비에분망중인데 지난삼십일일에는 동공사지진제(地鎭祭)를 사리원역구내에서 성대히 거행하엿스며 공사는 아프로 급속진행하리라고한다

動物慰靈祭

五日에擧行

병으로 식용, 실험용으로 사고로 히생된우물의 불상한영혼을 위로하는 우마견(牛馬犬)기타 각종동물의 제사를드린다는 구실로가 올의눈물겨운소식— 총독부위생과에서는 오는오일오후한시부터 내삼청정(三淸町)에잇는 세균검사소(細菌檢査所)에서 동물위령제(動物慰靈祭)를 거행하기로되엿는데 제주(祭主)는 서귀총독부 위생과장(西龜總督府衛生課長)이 되어가지고 먼저 제문낭독과 소향이잇슨후각관계자 들의 소향이잇서서 자못장엄하게 될터이다

取消申請

昭和十三年九月九日 貴紙第二面에 報導된 姜永植이가 李恩澤氏長女 李安羅를 致死시켯다는記事中 그母親 張康子에게 名譽롭지못한 말을 傳해報道된것은 其後 明白히 判明된거와如히 이는 全然 姜永植夫妻가 共謀한後 罪를 隱蔽시키고 그責任을 轉嫁시키려는 手段으로 行한것이 誤報되엿스매 이를 取消訂正함을望함

昭和十三年十一月一日 張康子

朝鮮日報社社長 殿

◇…三地方對抗蹴球에 優勝한咸興軍

三地方蹴球對抗戰

宿敵京城을擊破코 咸興遂制霸

稀有의白兵戰展開!

涵都蹴球팬의 期待와興味를담은 이끄는 朝鮮蹴球協會主催의第一回三地方對抗蹴球決勝……中央(京城)對北朝鮮(咸興)의 第二回戰은 一日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열리엇다 前日의第一戰에 三對三으로비긴兩軍은 緊張과興奮속에對峙하야 惡戰苦鬪끄테 드디어 一對零으로咸興軍이 記念할 初回의榮冠을獲得하엿다 이리하야 同大會長高元勳氏로부터 朝鮮體育協會優勝旗 朝鮮蹴球協會盃와 每日新報社長盃와 및 本社社長盃를 授與하고 國旗降下式으로도 終幕을告하니 어느듯運動場에는 幕이나려더라 訓練院頭에는 咸興의 陣頭만이 毅然히 빗나고잇섯다 이번처음으로열린 三地方對抗에 出場하야 元氣旺盛하게 처음부터긋까지 아무런支障업시 快한勇戰을 보여준것은 斯界의 將來를 위하야 慶賀하는바이다

北朝1 中央0

(前1—0、後0—0)

四十歲以上老將들이 訓練院頭에登場

天眞爛漫한小學生競技等 今日、蹴球"카-니발"

朝鮮蹴球協會主催의 第十九回全朝鮮綜合蹴球大會第一日은 今二日正午부터 京城運動場에서擧行되는바 이날은 四十歲以上인 昔日의名將들로 편성된 紅白兩軍의 主將으로推戴하고 旗腹絶倒할對抗戰을 行하는等 實로보기드문『푸로그람』이다 이밧게 蹴球熱을 鼓吹시키는意味에서 一般에게 無料公開할터이라한다

今日의運動

◆蹴球=朝鮮蹴球協會主催 第十九回全朝鮮綜合蹴球選手權大會 第一日 午後一時 小學團決勝 普成小學對新城學院 ◇中學團 第一回戰 中東對培材 午後二時 ◇一般部第一回戰 咸興蹴球團對水原蹴球團 午後三時半 壯年(四十歲以上)紅白戰 午後五時 以上全部京城運動場(觀覽無料)

◆럭비=高專豫選리-그第六日… 大學豫科對京城醫專 午後五時 龍山鐵道球場(觀覽無料)

총 딱

○경관이 거리에 나 안진 해산부를구조

○경민일치(警民一致)의정신은 이런데서부터

○미담정도가 아니라 크게표창할일

○안해를 사랑하기때문에 배를 빌린 남의씨를 죽인사나이

○부모의조상시 자식의 대에까지 밋친다는것은 고금이 마찬가지로 『상례』로 나타나는일

曆

◆十一月二日(水曜)陰九月十一日◆壬戌戊寅◆日出午前六時五十八分◆日南中午後零時十七分◆日入午後五時三十六分◆滿潮十時三十七分◆月出午後二時十四分◆月入午前零時五十九分◆滿潮(仁川)午前一一午後

今日 天氣 晴一時曇

頭의痛症과疲勞에

ノーシン

노 신

家庭을沈鬱케하는 主婦의頭痛!

主婦는 家庭의中心입니다 언제나明晳한 頭腦로 明朗한家庭의 建設에 努力해주십시요

머리가아푸다、머리가무겁다… 머리가疲勞해서 흐릿하다… 는等은 緊切한일이 進捗되지 안습니다。곳 ノーシン을먹고 速히 明朗한頭腦를 恢復시키고 愉快하게 일을해주십시요

또、一日의激務에 疲勞하야歸宅하는 바깟양반에게도 당신이ノーシン을 勸해주십시요

ノーシン의優秀한點은…

頭痛과頭重을 速히 解消함과同時에 更히 一步나아가서 朦朧한 머리의疲勞를 恢復해서 머리를 明快케하는 獨特한 藥効를 併有해잇는것입니다

또한 常用하면 神經의榮養을조케하고 心腦를 强補하는 좋은効果가잇스므로 每日 頭腦를 酷使하는現代人의 必需藥으로서好評입니다

好評의 頭痛藥

主効 頭痛·頭重 頭腦疲勞·頭內朦朧 心氣倦怠·上氣 眩暈·船車의醉

三十錢·五十錢 一圓·二圓

全國藥店에잇소

製造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中部版

非常時水道의武裝
消火栓配水管增設
京城府明年度에六十萬圓豫算計上
其中半額은起債方針

전시체제아래 수도의 사명은 도시방화와 위생적방면으로 더욱 중대하야가고잇다 경성부수도과에서는 어떠한지에서 방화능력을 강화하기위하야 소화전(消火栓)을 증설하기로되여 임시부(臨時部)에 양육십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기로되엿다 그중 약반액은 기채(起債)할방침이다 즉 삼십만원으로 소화전이백사십개를 증설하기로되엿다 현재 시내에는 공설소화전(公設)이 칠백구십사개, 사설이 팔백사십개소가잇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공설이 일천여개소에 달하게된다 배수관증설은 작기이십근선(幹線)에 총연장 일만오천오백육십메ㅣ터로서 소요경비 삼십삼만여원이다 현재 시내배수관총연장은 이십사만삼천메ㅣ터이므로 합하야 도로총연장의 약오할에 해당하야 외선급한곳은 거의부설되는세음이다 그중 제일큰공사는 본정(本町)에서 영등포(永登浦)로 가는 사천칠백팔십메ㅣ터인데 이것이되면 현재인천수도에공급쓰는 영등포는 수도도 경성것을쓰게된다 이밖게 팔만원의공비를 던저 노량진수원지에서 구시내로 들어오는 한강교송수관(送水管)을 복선으로할계획이다 이것은 비상시교량의 일부파괴를 예상하는 대책이다

명년도에예정된 배수관증설노선은 다음과갓다

東洞町↓永登浦, 鷺梁津, 梨泰院町, 桃花町, 彌生町↓元町四丁目, 京町, 蓬萊町二丁目↓竹添町三丁目, 南米倉町, 南米倉町↓旭町一丁目, 內資町↓西大門町二丁目, 光化門↓中學町, (公平町↓仁寺町, 貞洞町, 大和町三丁目, 南山町一丁目↓岡三丁目, 新町↓西四軒町, 花園町↓大和町三丁目上往十里町↓下往十里町

明年부터는水源豐富
斷水騷動은完全解消

별항과가치 확장되여가는 시내수도에 공급할 수원지능력을 보면 뚝섬이평시하로에 이만팔천이방메ㅣ라 최대능력사만사천입방메ㅣ라 노량진에잇는 인천수도수원지에서 바들수잇는 양이 팔천내지 일만이방메ㅣ라 이박게 소화십일년도부터 사개년계속사업으로 공사중인 광장(廣壯)수원지의 제일차계획 급수능력이 삼만육천이방메ㅣ라인데이것이명년팔월경에는 급수하게될것임으로 수원은 대단풍부하야 단수소동(斷水騷動)은 완전히면하게되엿스며 광장수원지의 제이차계획이 완성되여 전부칠만이천입방메ㅣ라를 급수하게되면 급수량합계는 십사만사천입방메ㅣ라에 달함으로 소화이십년까지는 걱정업다

貝類採取禁止
仁川松島에서

【仁川】 송도어업조합 (松島漁業組合)에서는 『조개』를 양식(養殖)하기위하야 금지(禁止)구역을 맨드러노코 이금지구역내에서는 사촌(四寸)이하의 조개는 잡지못하도록 감시원을두고 철저적으로 취체에 노력을하던중 지난 시월삼십일에는 동어업조합 아부(阿部)기수가 금지구역을 시찰하던중 사오인의사내가 멀리강가로 부터달려옴을 이상히여여 몸을 은신하고 망원경으로 그자들의 행동을조사한바 의외에도 조개를 몰르게 잡음으로 동기수는 변복을하고〃지게〃를지고가서 베사람을 붓잡고 한사람은 도망하야 어듸로갓는지 모른다는데 이들은 아조전문적으로 금지구역내를 출입하며 그와가치잡은 것을 자백하얏다는데 전부송도 근방이인천(仁川)에 거주하는바 남이(朴南熙)임재순(任在順)김영호(金永鎬)권간정(權間正)등으로 잡은수량은 한말(一斗)가량식이나된다는데 동 어업조합에서는 이를 철저히하기위하야 이것을 인천서에 의뢰하야 근절시키리라한다

제프테리아의 豫防注射實施

지프테리아 예방주사ㅡ지프테리아의 유행기가 닥처왓스므로 지내 종로경찰서와 동경찰서 관내에거주하는 유치원아이나 혹은 미취학아동에게 예방주사를 시행하기로 되엿는데 종로서관내의 아동들은 십일월 [illegible] 일 [illegible] 나서사직정(社稷町) [illegible] 에서 [illegible] 수자는 [illegible] 일상오에 노다서연구(?)소화 공본정(本町)사정목 진찰소에서 각각오전아홉시부터 오후네시까지시행할터이라한다

領井浦로延長後
江華民不平漸高
宿望達成이나延着頻繁

【江華】 개성(開城)의유일한단로항인령정포(領井浦)는오래동안버림을 바더그의 영자는오래동안 메허리하야 누구나 그의장래를 걱정하야 왓는바 시국의 영향을바더 도저히 기차의 편으로도 만족할수업시되여 당국으로도 상당한 연구를하야왓든나머지에 지난팔월부터 삼신기선(三信汽船)에 종점인 강화 갑곳(甲串)을 연장하야 전기 영정포항을 종점으로 연장하야 오래동안 연안주민의숙망을 일우게되엿다 그반면조천항이 번영됨과 동시에 강화분도에 잇서서는 정각보다는 늦는다 한시간내지 사십분의 연착으로 승객의 불평을 자아내게되여 일반의 불평이 허지만코 호의가불을 사게되는오날 갑곳 령정포 사이에는 [illegible] 선박을 취항케 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二人組竊盜犯
仁川署에被捉

【仁川】 인천부내를무대로 신출귀몰하게 횡행하며 금품과현금 시계등을 절도하야 [illegible] 당국에서는 [illegible] 서원이 지난이십일일오전네시경 부내송현정(松峴町)부근을 순행중 행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하야 본서에다려다가 취조한결과 부내각처(米商店)에 [illegible] 절취한사실을 자백하엿는데 피해건수는 [illegible] 여건에 피해금은 천여원에달한다하며 여죄가잇슬뜻하야 취조를계속중이며 여죄가상당히만하리라고한다

[illegible] 대에서는 각처에서 [illegible] 등을 어르키고잇다하며 [illegible] 항은 다음과갓다

一、正租共販에關하야 [illegible]

長湖院總出動
漢口陷落祝賀

【長湖院】 금번 한구함락을경축하기 위하야 장호원은 이십구일에 총출동하야 오후에는 가장행렬 [illegible] 전시중에 용퇴이는듯하엿고 외미기픈 가장행렬에는 남자가여자로 여자가남자로 변장한것이며 옛적장신이 이십칠장신으로 변하야 전시를 굴어보고다니는 자도잇섯스며 이외에도 형형색색의 변장이만헛스니 한구의전 [illegible] 시가좌우에는 만국기와 가화(假花)로 장식하야 노흔것이 마치삼 [illegible] 에 [illegible] 를 구하고 인원이 삼키도록 궁하엿스며 가설된 전봉등 각시민의 재롱으로 [illegible] 전시가는 [illegible] 명어리로 피하고팟엿다 악대의개 선가와 학생들의 [illegible] 만세성은 전승가 시민들의 열렬한 만세성은 [illegible] 고요하든 [illegible] 울리엿새 마치사 자가 [illegible] 망체잇는 [illegible] 방으로 차자다니며 고함치는것 파 [illegible] 하게 전시가를 울즈기고 마릿다

떡집과국수집의
衛生施設을團束
不潔한곳은斷乎處分

떡집과국수가게는 모두가 위생설비가 빈약하다고 경찰이취체하기시작하얏다

시내 종로경찰서위생계에서는 관내의 떡집과국수집을 비롯하야 맛숙집도 일체취체하기시작하얏는데 떡집과국수집은 종래에허가를엇지안코 영업하는관계로 취체가롱한형편이아니라 모두가위생시설이 빈약하야 불결하기 짝이업는데 이것은 민중보건을위하야 간과할수업는 사실이라하야 위생시설을 철저히하도록 취체할터인데 당국의 지시대로 하지안흔곳에는 행정처분을 시킬려이라한다

玫瑰學校昇格

【長湖院】 사립매괴학교(私立玫瑰學校)는 대정이년팔월십일이래 교장 임가미(任佳彌)씨의 열성 [illegible] 파려대교원들의 불면불식고심한 결과 드듸여 지난시월칠일부로 소학교로 인가되여 학교당국에서는 시월이십이일 개교식까지 성대히 거행하엿는바 과거에빗최여장내에도 유익의교육기관임은 일반의축망하는바라고 한다

新耕傳習會와
農具展示會
富川郡農會主催로

【仁川】 산미개량(産米改良)상히 중요한 가을가리(秋耕)를 장려하기위하야 총독부 농림국에서는 오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매진하는바 부천군농회(富川郡農會)에서는 총독부의 취지에 순응하야 본년도부터 동계회의 삼년을마처 일대독려를하야오는바 금번은 이를 철저키 위하야 동농회주최와 부평수리조합(富平水利組合)의 후원하에 경리회(耕犁會)리경전습회(犁耕傳習會)개량농구전시회(改良農具展示會)등을 오는칠일 오전구시부터 부내면대정리(府內面大井里)김포가도연변에서 개최키로되어 동농회에서는 만반의준비를갓추어 동일의 대성황을 기한다하며, 동회에참가할 선수자격은 관내유지면 부터 선발한 사십여명의 경리(耕犁)회로서 각면에서 우수한경수(耕手)오명식을 출장시키기로되엿다하며 출장자는농우(農牛)소먹기(午飯)등을 준비하야 당일지참하기를 바란다 한다 개량농구전시회는 경성에 잇는 동광(東光)대동(大東)양농구점으로부터 최신개량농구를진열시키며 참석자와관람자들에게 무료관람을시키리라하며 도각농구점으로부터 선전원이 출장하야 이를보급시키리라한다

이경전습(犁耕傳習)회는 별기 두농구점으로 부터 내지에 파견한 기술원을 초빙하야 이경전습에 실지실습시키어 일반관람자와 출장사에게보급시키리라하며 당일의 역원은 다음과갓다

▲委員長、農會長 ▲顧問 富本水利組合理事 ▲主事副會長 ▲審査係長 一名(道 又는農事試驗場)

[illegible] ▲川村, 山田, 櫻井, [illegible] ▲ [illegible] 金仁鄕 [illegible] ▲ [illegible] 川澄 櫻井 [illegible] 成 [illegible] 金在洙 [illegible] 李大永 李 [illegible] 秀 李富男 朴 [illegible] 永 ▲ [illegible] 鄭範淳 石井 三 [illegible] 韓東輝 孫元泰 李正 [illegible] 金 [illegible]

▲表彰 一等賞二名 二等賞二名 三等賞三名 四等賞五名 五等賞二六名

道路를修繕한
開城住民表彰

【開城】 개풍군 령남면(嶺南面)지구에잇는 경의선 (京城新義州線) 일등도로는 판문주민이 수선개수를 가장열심히 하야오는신일을 중청장기도지사로부러이를주민을 표창키로되엿다한다

有功社員을表彰
愛婦金浦分會에서

【金浦】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김포군분회에서는 지난삼십일에 동소학교(東小學校)대강당에서총회를 개최하엿다는데 당일에는 본부부장 지부장참석하에 사백여명대다수의 회원이 참집하야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엇다 당일 오전십일시삼십분에 군청회의실에서 역원공로자에대하야표창수여식이잇슨다음 오후한시부터 동소학교강당으로 장소를옴기여 총회를 개최하고 여러가지의 식순을 엄숙히 거행한후 본부장대리 역원부상은 김포군분회기(金浦郡分會旗)를 수여하고 삼산과장(森山課長)은 회무보고를하엿스며 이부회장의식사와 양부장의 고사가 잇슨다음 도지부부장(道支部副長)길정서장(吉井署長)해굴태일랑(海堀太一郞)잠씨의축사가 잇섯다 그리고 유공장수여가 잇섯는데 그 유공장을받은 회원의씨명은 다음과갓다

李貞卿 吉井すゑ美 海堀翔生 金善鳳 森山淸子 伊能代 金在哲 白淑子 金榮順 金明淑 鹽瀨靜子 赤尾登志子 崔福女 鄭興仁 李富全 淸水よし 大谷丰子 洪明順 禹吉順

防火能力을擴充
家庭防火組合을新設
市內各町會에서十戶를單位로

경성부에서는 지난팔월일일부로 연래의 현안이든 대정회제(大町會制)를 실시하야 이백사십정회를 일백십육정회로 정리병합하게된것을 기회로 비상시방공적견지에서 방화능력 (防火能力)을 확충강화하는것이 긴급사라고하야 신정회를 독려하야 십호내지 이십호식을 한단위로가정방화조합(家庭防火組合)을 조직하고잇다함은 기보한바로 시일팔현재 정내전부에 조합조직을 마친정이 전시의 약반수육십개정에 달하는 조합성적을나타내다 부당국에서는 남어지정회도 적극적으로 독려하야 십일월안으로 전부의결성을 마치고저 힘쓰고잇다

戰線長官에게
水原邑民謝電

【水原】 중지군사령관(中支軍司令官)전군대장(畑軍大將) 전준륙각하(畑俊六閣下)지나방면함대사령관(支那方面艦隊司令官)해군중장(海軍中將)급천고지랑각하(及川古志郞閣下)북지파견군 최고지휘관(北支派遣軍最高指揮官)사내수일(寺內壽一閣下)각하에게 십월이십구일 아래와가튼물로 장사전보를 발송하엿다

한구함락(漢口陷落)으로 하야 항일(抗日)대근거지가괴멸되고 빗나는 전승에대한 황군장병 여러분의 진충용맹한 위훈을 찬양하야 이에 수원읍(水原邑)민을 대표하야 지심으로 감사한뜻을 표하나이다 昭和十三年十月二十九日 水原邑長 梅原靜雄

漢口陷落慶祝

【水原】 황군의 용맹무쌍한 진공에 무한삼진(武漢三鎭)까지함락됨에 수원(水原)읍민은 열광적환호와 축배로 연삼일축이십팔일 기행렬 이십구일은 봉야성의 제등행렬 삼십일은 황군장병의 위령제를 행하엿다

正租共販以後의
利害關係를調査
仁川商議所에서

【仁川】 현하전시체제하에 잇는 국민으로서는 생업보국에 매진하는일방 관계당국에서는 민간경제의 복리증진을 도모시키기위하야 금년부터 실시된정조공동판매 (正租共販)를 각농촌에서 시행함에따라 곡향 인천과의 관계를 선명히 구명하기위하야 인천 상공회의소 (仁川商議)에서는 각방면으로 생산자의

秋耕
—近郊所見

말못되는水洗便所
灌水에三割淨便에七割不良
道警察部檢查結果判明

004035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에서는 얼마전 경성부내에잇는 각관청 병원 학교 회사 및데파ㅣ트등 도합 삼백구십이개처에 장치된 수조(水槽)변소에대하야 검사중이엿는데 이제 검사한결과를보면 관수(灌水)설비불충분이 약삼할이고 정변(淨便)설비불량이 칠할이상이나된다는 놀라운 현상을보여주고잇다한다 원래 수조변소는 보통변소와는달러 관청 병원등 식솔도만코려니와특별히위생에유의해야할처소에서 사용하는것이 통례인데도 불고하고 관수에삼할 정변에칠할이란는 불량률을 내이고 잇다는것은 부민의위생관념향상으로도 유감된일일뿐아니라 정변장치의 불충분으로 멸균(滅菌)이안된 더럽고도 위험한 오물이 그대로 하수도로 나가게되여부민의 위생에대한 중대한 협위를 이루고잇서 이대로방임할수업는 문제라해서 도위생과에서는 근일중으로 불량변소의 급속수선을 엄명하리라한다

天摩山丹楓노리
本報開城支局主催
峻險山岳踏破後歸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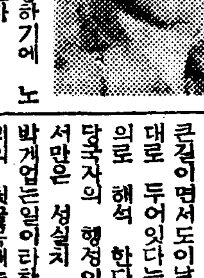
【開城】 본보개성지국주최 천마산(天摩山)단풍노리단원이 십일월오전여덟시 본지국에서 출발기념사진을 찍은후 뻐ㅣ쓰에 몸을실어 탐승의길을떠낫다 떠날때는잔뜩흐린 하늘이 비가올듯해서 몹시 가슴을 조리게하바잇섯스나 가는도중 하늘은씻은듯맑게개여 우리의앞길을 축복하얏다 화장사(華藏寺)고개에서차를버리고 일행은 경쾌한기분에차서 단숨에 원통사(圓通寺)까지이르니 때는열시반ㅣ이곳서점심을먹고 서로통성명을하야 한집안식구가티 친해진단원은 이제부터 산정등우에 첫발길을인치키시작하얏다 바라보니 하늘노픈줄모르게솟아잇는 기봉암수장한데우수수 낙엽흘리는 추풍이산허리를감돈다 일행은숨버림듯한 풍림(楓林)속을 헤쳐골거치른 산악을 숨차게 치다르니 이윽고부터는 길이 막히고 험준한 바위를안고 지고 너머야되는 안도리 지도리등으로 발한번 잘못노하 아차ㅣ 실수하는날엔 천녁에 떠러저 지옥가는신세다 그래서 살어서승길이란 이곳에 와서는 별수업시 손에든 집행이를 버리고 너머야만되는때문에 바위미테는 수백개의 집행이가 산가티 싸혀잇는것을 볼수잇섯다 말하자면 손에 진법이넘만큼 위험천만한이산악을 건각부대(健脚部隊)이후리단원은 집행이하나 버리지안코 답파하얏다함은 이산악탐험이후 신기록일것이다

그리사 다시구비구비 산꼭을올아『너러바위』에 다달어 괴로한다리를쉬면서 사천을 내려다보니 주위에둘린산들이 모두눈아페깔려잇다 이곳서 우리일행은 남아의의기를 한번목내 만세를 고창한후 다시 해발이천척이되는 상상봉을기여올리『쥠바위』란 좁은바위짬에서 미구리가티 몸을빼처나와가지고 성을끼고약오리쯤가니 다시『주춤바위』란 비탈진바위를 내려가게된다 일행은 모두 안즌뱅이가되여 바위에 응뎅이를부벼가면서 주춤주춤안저서내리는 광경은 실로가관이엿다 이러케 험악한산악을 비호(飛虎)가티독파하야 개성암(開聖菴)에다달어보니 사실리의 산악을 두시간만에 답파한것이엿다 이절간에서 생소는 생불로 목욕소이후 다시관음사(觀音寺)에나려가 사채료것드린 저녁밥을 마잇게먹고박연(朴淵)의 비폭을 구경한후밤일곱시반 괴로한몸이 자동차에실려 개성까지 무사히 도라오게 되엿는데 일행은 독창한창으로 하로의정흥을 못끼지노래하얏다 (사진은 너러바위에서 聖居山을眺望하는 團員一行)

새마을새소식巡聽記

笠井町會
幹部陣容을一新
町民間親睦圖謀
町會費를올려서施設擴充 ㉕

립정정(笠井町)은 동으로 수교정(壽橋町)서으로는 장교정(長橋町)에접하여잇고 남으로는 관수교(觀水橋)로 통하여잇는 동리로서 어느편으로보던지 물에인연을 만히가진동리이며 또한 그동리의 지형도 청계천(淸溪川)가으로 길다라케 뻐처잇다 호수로는 삼백칠십사호이나 살림사리수효는 일천이십호나 된다 이것으로써 겹박사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만흠을 짐작할수잇다 이동리 정회 (町會)는 지난칠월에 역원들끼리 갈등이생겨서 총사직을 하는등으로 한동안 분규를 이르킨뒤에 약두달동안이나 가위 『무정부』 상태로 잇다가 구월부터새진용을 정비하야 종래의 여러가지 향기롭지못한일을 바로잡어 가기에힘쓰고잇는중이라한다 이정회총대 강용희(康容熙)씨의 이야기를 드른면 이정회의 급선무는 무엇보다도 정회원들사이의 친목을도모해야 될일이라한다 지난번역원들사이의갈등도결국개인끼리의 사사감정이 싸이고차여서 마츰내 폭발된것인데 그뒤로는 더욱이 감정이악화하야 소위정내에가장 유력자라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는반목질시태를 계속하고잇는현상인데그영향은정회각방면사행에도미처서 여간 지장이 만흔바가 아니라한다 내선일체를 부르짓고잇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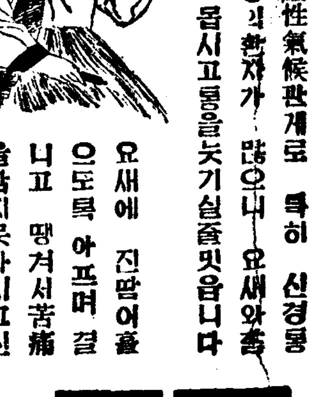
이때에 이정회에서만은 내지인유력자들은 조선인정총대가 선정되엿슴에불평을품고서 의례히참석해야될일에도 일체불응하며 심지어출정군인 전송에는귀환한영가튼데도 전연나와주지안해서 자못딱한 형편에 잇는터이라한다 그러나 정회역원들은 모든힘을 다하야 이들『이단자』(異端者)들을 무마포용하기에 노력하고 잇는중이라한다

이정회의 회비는 매월칠십이원가량 수입되는데 이것만으로서는 도저히 여러가지 사업을 경영하여 갈수업는터이므로 요지음에 그배액으로 예산을 증액하야 정회비 부담을 더 올려서 금년안으로 실시하게되리라한다 이동리는 경성부에서경영하는 청계천 뚜정덥는 공사(覆蓋工事)가 진행되여가는대에 만흔기대를 가지고잇는데 시국관계로 그공사가 천연되게 되여서 여간 애가 타는바 가아니라 한다 개천가의 길로 가너무도 좁아서 여름에 비가와서 물이나게되면 자전거를 타고가는사람이 이개천에 떠러저서 히생되는 비참한 사고가각금잇게된다고 한다 어재건개천가의 길이만흔사람의 통행하는큰길이면서도이날까지 옛모양그대로 두어잇다는것은 아모리선의로 해석 한다드라도 경성부당국자의 행정이 이점에 대해서만은 성실치 못하엿다고할수박게업는일이라하겟다 또한이동리의 뒷골목에는 개천이 만히잇서서 위생에불결한 점이만흔대 그개수공사에 전연착수하지안는 형편이라한다

현재 약소한정회의 예산으로 위생비와 가등비(街燈費)도지출하고또 일방으로 야경(夜警)도 실시하고잇는터이나 이것만으로는 정회원에게 만족하다고 할수업는일이므로 총대이하 정회역원들은 어떠케해서든지 정회원들의 복리증진 (福利增進)을 위하야 조흔사업튼더 만히하여야 되겟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조흔안을 연구하고 잇는터이라한다

安洞네거리에도
交通整理를要望
交通量激增에對備策

안동(安洞)네거리에 교통정리대를 설치하라는 요망이 놉다 시내안동(安洞)네거리는 시내에서도 굴지의 교통번잡지대로서 요지음은 북부경성의 발전과 병행하야 날노교통량이 느러가고잇슬뿐아니라 증가되는교통량에따라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건만 무슨까닭인지 교통정리원의배치와 정리기의 설치를하지안코 전연등한시 하고잇스므로 북부경성주민들의 불평이노프며 하로밧비 다른네거리처럼 교통정리의합리적방법을 강구하여달라는요망이 잇스므로소관종로서에서는여기에대한 기초적연구조사를하는한편 동서가 여기대한 대책을 실시할터이라한다



압은곳에

조선은 大陸性氣候관계로 특히 신경통 부통 견비종의환자가 만흐니 요새와츰은더위에는 몹시고통을늣기실줄밋읍니다

요새에 진땀이흐르도록 아프며 결니고 땡겨서苦痛을참지못하시고신음하시는 신경통 류ㅣ마지스나 현기증 부통이 심하실때는 보통 內服藥이나 貼布藥을쓰시는분어게시나 이렁안때에 사로메지ㅣ루를조곰발느시면 그런종류의약으로는 도저히 엇지못한즉효를 엇게되어 곧낫읍니다

그것은직접환부에조용하는약인까닭이니 아픈곳에조곰발느시고살살문질느시면 藥效는 피부조직을통하야 근육심부에 침투되어 病根原에까지 작용하는약임으로 그렁게 속히 고통에서 버서나시게하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느가정에도 꼭한개식 필요한家庭應急常備藥이오니 모기 빈대의게밤과 가려운곳의치료가되오며 몹시품을 늣기실때 삐인곳 멍든곳 쑤시는곳땀결니는곳에조곰발느시면 곧낫는입니다

五十錢 一圓 二圓半

全道藥房에 잇읍니다

サロ ール
사 로 루

東京·大阪 田邊商店

長篇小說
薄命 (132)
韓龍雲 作 鄭玄雄 畵

결혼 二十九

『선생님 말슴을 알어듯겟습니다 저자는 처지에서 저금하기가 어려웁다는것 보다 무슨돈이 어디서 나서 저금하게 되엿느냐는 말슴이시겟지오 그러치만 조금이라도 더러운 돈이나 께름칙한 돈은 아닙니다 손님들이나 주인어머니가 저를 귀엽게 여겨서 잇는것 보다 불상하게 생각하야서 어따금 돈푼씩이나 주시는것을 함부루 쓰지안코 저금한것 이야요 거기 대하야 조금이라도 의심하실것은 업습니다 저는 몸은 천하야도 마음은 그다지 천하지 안허요 의심하지 마서요』

순영이 말은 힘이 잇섯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로 하는말슴이 아닙니다 설사 순영씨가 적당치아니한돈을 모앗게로손 나로서 그것을 의심하고 어쩌고 할것이 엇나요』

『그야 그러시겟지요 저만 사람이 무슨짓을 하게어던 선생님 갓흔신 어른이 그것을 관계하실게야 업겟지오……』

죽겟는데 선생님이 자격이업스면 누가 자격이잇서요?』

순영이는 얼굴비치 풀리면서 옷으라다 참는다

『아니 다른자격은 잇슬는지모르지 마는 순영씨의 행동을 의심할만한 그자격이 업다는 말이지요 순영씨의 행동을의 심한다는것은 바꾸어 말하면 저로서 순영씨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순영씨를 사랑 한대서야 말이되나요?』

『어째서 말이 안된다는 말슴이야요?』

『자격이 업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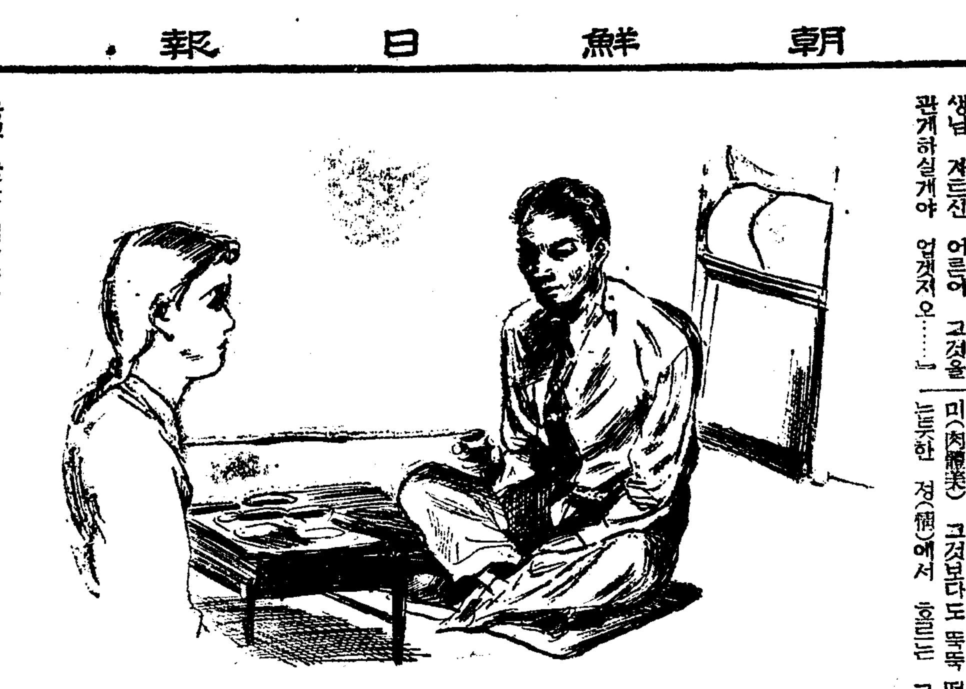
대철이는 허리는 굽히고 눈은 드리서 순영이를 처다본다

『에그 선생님두』

순영이는 웃음 투성이가 되면서 손등으로 입설을 씻고 다시 수전자를 만저보더니

『술이 다 식엇구니요 요새도 술이 차면 위생에 해롭다는 데요』

하고 수전자를 들고나가는 태도는 으른하고도 안상하야서 전체가 곡선(曲綫)이오 유동적(流動的)인 무르녹은 청춘의 육체미(肉體美) 그것보다도 뚝뚝 떳는듯한 정(情)에서 흘르는 그



하고 말을 떠하랴다 그만두는 순영에는 부끄럽게도 하고 불쾌하게도 하엿다 자기가 돈모은 여유를 말하야 의심하지 말라고 한것은 대철에를 십분 어나 맛고서 아무조록 자기에게 대한 오해를 업도록 하랴고 한것인데 대철에는 자기의 행동에 어찌 되엿던지 아랑곳할것이 업다는 뜻으로 말을하게 되매 순영이로서는 자기가 의심하지 말라고 경솔하게 말한것에 넘우치고 불안스러웟다

『아닙니다 저의말에 잘못되엿습니다 의심할것이 업다는 말슴이 아니라 순영씨의 일에 대하야 의심할 자격이 업다는 말슴입니다 만일 순영씨에게 그러할 자격만 인정이 된다면 그보다 세밀한것 이라도 의심할 수가 잇겟지오……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도 순영씨의 과거 행동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알고도 시프고 의심되는일은 실삼스럽게 못고도 시프지마는 스스로 도라보아도 그러할만한 자격이 업다는 말슴입니다』

하는 대철에는 가벼웁게 한숨을 내쉰다 그것을 보는 순영이는 도리어 자기가 나조할을 경솔하게 한듯 하야서 머안스러웟다

『무얼 그러서요 선생님가튼 어른이 무슨 자격이 업다고그러서요 저는 이러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하는것만 하야도 과분하고도 조선스러워

것이 더욱 아름다웟다 그러나 손까지 꺼고 안저서 나가는 순영이의 뒷모양을 보는 대철이는 순영이게 대하야 마음이 옹직인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육체에서인지 정신에서인지 그것은 알수가 업섯다 어디서인지 열두시를 치는 시계소리가 들린다

『에그 불이 다꺼저서 새로 피우노라고 느저저서 미안하게 되얏습니다』

주전자가 석울서라 하고 두손으로 풀고 드리오는 순영이는 아직까지도 아까 웃음이사라지지 아니하얏는지 그의얼굴에는 어디던지 우숨비치엇다

映畵의長篇叙事詩
舞蹈會의手帖
★印象片片★

『듀비비에』의作品이란 그스케일이큰것과 그呼吸이普通사람으로는窒息할程度로 걸고넘은까닭에 한作品에 곽째이고 肉薄을가추지못하야 어찌보면 印象이稀薄하기도하고 肉迫하는感度가徹底한通弊가잇다 이것을 野生的이라고할까 더卑近하게말하야 배씸이 너무지나치게크다고할까? 『페페-』나 『골렘-르』의 映畵에比하야 어딘지 踈遠하야보인다

그러나 이舞蹈會의手帖에잇서서는 映畵藝術이가질수잇는要素라기보다도 『듀비비에』가想像할수잇고 構成할수잇는藝術能力의全部를 이한作品속에 集大成한느낌이엇다

(★)

絲杉樹느러진 伊太利의『코모』湖畔 껌고긴 로-브에차혀 조용히 쪼악돌길을밟으며거러오는 한女子— 크리스틴-느 白鳥가變하야 黑鳥로化한 不幸한女性이 제비는날러 南國으로간오늘 眞正한사랑을느낄새도업시 二十年가까운結婚生活이 그한男子의죽엄으로더브러 『피날레』를告하고난 이때 여기하나의奇蹟이잇서 그女子의少女時節을 回想시키는手帖을들고 寢台에때서 눈을감앗다

젖자기하얀모슬린 커-텐에 물결처느러진 舞蹈室에 白鳥와가튼 긴로-브를입은 二十餘名의少女와 제비와가티 날신한 二十餘名의靑年이 쌍을이루어 『灰色왈츠』의리듬에마추어 輪舞하고잇다 그中에서 한얼굴이 가까이와 그女子의귀속에 사랑을속삭어다 그靑年만이 크리스틴느의一生에꼭한번 사랑을 약속하엿던 『제라-르』다

아!『제라-르』! 그女子는 이러케불러보앗다

(☆)

사랑을爲하야 靑春의生命은 하나의불꼿바게 안된다 그러나 한사랑하는아들을 위하야 어머니의一生은 虛無할수가잇다 크리스틴-느는 가장사랑한『조른쥬·오티에』그女子의 結婚請狀을바든 그날인(一九一九年十二月十四日)이 꼿二十四歲인『조른쥬』의死亡通知를 내야하는날어되고마럿다 그리고이날 그어머니(고랑소와즈·로제)는산송장으로 幽靈과가티 날마다 編物의실마를 잡고안젓는生의最大悲劇의 女主人公이되엿다

〃조른쥬〃의 起居하던방! 레블에는 파어고가노히고 그보다도 마지막 사랑을爲하야 生命의 마지막을 決定하는든 렬고·카-드는가 고대로 노혓서 잇다 그리고 卓上日記 한편에 버서노흔 구두 椅子우에버서 걸어노흔上衣 모든사랑의 悲劇가운데 이한場面은正히새로운 不滅의 어메-저를 남겨노핫다

(○)

自己를차저오는 女子라면그것은 依例히 돈이든가 그러치안코면 男性誘引하려오는줄아는 죠-라는 나이든플러-브의主人公인 옛날의괴에-르 世上의모든꿈과 希望을 저버리고만 한存在! 그러나 그로도 二十年前 그날밤 사랑하는 크리스티-느와 서넛가를거닐며외이던 베를레-느의 詩—

차디차고 쓸쓸한 廢園에 두形體는 나러낫다가사라지다 그들의 벗업는눈과 힘업는 입술 말소리까지도 사라지는 듯하다

차디차고 쓸쓸한廢園에 幻影은 옛날을 불러보다

——그대는 지내간날의 抱擁을 생각는가?

——왜何必 고대는 옛追憶을생각하라는가?

——내이름만드러도 언제나 그대가슴은 뛰고엇는가? 언제나 꿈속에 벼넉슬 보는가?—아니요

오-뉘하시 幸福스럽던날우리가 키쓰하던 출겨운그날— 그랫술게요

——그때 하늘은푸르고 밝어 希望에 찻섯다

——希望은시드러 어둔虛空에 살어젓거니!

그러나 〃죠-〃는 부르려가고 괴에르는 크리스티-느의 꿈속에 남겨두고갓다 하야오르던 크리스티-느가쏘다지는 벗숑기기를때 그女子의귀에들리는 어우에쏜 詩의마지막 聯—

〃이리하야 그들은 겨스른밀밧속을 거러가고 밤만이 그들의이야기를 드럿다〃

(☆)

아침저녁 종소리를 드르며철없는 어린애들께 聖歌를가르키는 저넘날의 音樂家인랭르(아리, 보-르)그의 빗나는대머리와 沈重한 말소리속에는 한少女의 사랑을입고 아직도 그少女의 그림자를 가슴에안은채 六十이된 오늘까지 인제세상에 얼울지도 모르는 그 幻影과함께살어잇다 눈오는어두운날 陰散한 옛伽藍속에 하나의 그림자를 붉러에게하는 老神父 그말소리는 마디마다 가슴을 울린다 우름과 슬픔이 淨和되여 한아름다운활을 일우어엇다

(★)

마르세-유의 부둣가에 靈魂을 버리고 朝夕으로 罪惡을 粉碎시키는 크레인소리에 묻속 은廢人이되야 이따금 發作을이르키는 醫師티에리(괴엘, 브랑살)이 畵面을보는동안 보는사람의 精神에도 錯亂을이르킬 疑惑을 가지게한다

그는이미〃아미〃(동무)라는 말조차 드러보지못한 산송장으로 化하고마럿다 『크리스티-느』! 이러아름다운 꿈은 벌써한옛날 딴世代의이야기로 바게안들린다

『生地獄!』이런悲慘을 우리에게 露現시키고잇다 아-사랑의追憶때문에 苦悶, 꿈, 希望이던것을 磨滅當하고만 크리스티-느의 出現으로 새勇氣를얻어덧다는것도 한瞬間, 드디어 괴스톨을꺼내는 그들로 慘變되고말엇다

(★)

……코모의湖水에 던저지는하나의돌맹이밖게안되는 그옛날의戀人들! 그러나 그한사람까지— 運命의 湖水의兩便에서도 十五年동안서로 바라보면서 만남機會를 가지지못한 『제타-르』 드되여 이 『제타-르』까지 차저간 크리스티-느는 二十年前의 『제타-르』 그대로의 少年(로베·리낭)이水여며 悄然히 沈吟하고 잇는 자크! 크리스티-느의巡禮는 자크, 제라-르를舞蹈會로내여보내면서 다다가남은저가-를재떠리속에 접어너코手帖의 淸算과함께새로운 生의길에 새가뿐을 發見한다

(浪雄生)(十一月二十一日부터 明治座上映中)

畵家의線畵映畵運動
〃헴레트〃의漫畵化
映畵藝術界의새로운衝擊 佛畵家브라망크의새計畵

불란서화단(畵壇)의 야인(野人)으로 유명한〃브라망크〃는 최근 선화영화(線畵映畵)에착수할것을 설명하엿다

〃브라망크〃가 이런새로운운동에 착수하게된동기는 첫째 미국에잇서서 장편 만화영화(漫畵映畵)가 왕성한데서 자극바든 까닭이라고한다 첫째〃디스니〃의 세계적명작 백설공주(白雪公主)가 예술적으로 뿐아니라 상업적영리(營利)방면으로보아도 굉장한성공을 엇고잇다 이에대하야〃브라망크〃는 다음과가튼 의견을 발표하엿다

『나는 선화로서〃폴로베르〃의〃보바리부인〃이나〃에밀·졸라〃의 대지(大地)가튼것은 퍽훌미엇는줄안다 말하자면〃로로레크〃나 〃포랑〃과자튼 유명한 연필화가(人物畵家)의 대창이 움직인다면 얼마나훌륭할것어라? 이것은 상상만해봐도 유쾌한일이다 그런데 내가 처음착수하라는것은 쇠익스피어의〃헴레트〃다 실로 화가(畵家)의 영화에의 진출은 이아프로 어떠케될른지 이문제는 천여새영화와함께 영화게의 새로운 운동아라고 보지안흘수업다』

새出發 로케순보 (一)

出發

밤 열시十분 釜山가는 車가 바우우리『새出發』로케班을 실엇습니다。 일행은 監督과 製作主任이하 스물세사람 전쟁떠나는 군대모양으로 停車場은 굉장한 전송이엇습니다。 차가 지금 어데쯤 달리는지 서간은벌써 새로한시 떠들던 친구들도 하품치기 시작하 입니다 특별 못 意氣萬丈 응급으로 맨든 俯瞰台로 文藝峰양과金

第一日

황송스러우리만침 개인날새입니다 오늘은 위선마을 근방의 촬영으로 일동은자 안슴니다。 배우제군은 여간 동정되지 路程인데 황차 사걸이다 여키로의 八所까지는 定宿 시間 시간다 東로한 合自動 지연乘 다만 지금 로케班本部까 大邱엔 식전에내려왓으니 山路强行 는모양이다

實을 眞實으로 보지다시피 사실 어장면은 『새出發』下반의전으로 文藝峰양은 四五十되여뵈는 늙은어릉당하여도 아조무난히해버ー렌트의어머니겨되여 보엿습니다、젊은안해의시절과늙은어머니의시절을 한작품안에서마려보는그는하중지금까지느껴보지못한 새努力의 責任感을 느낀다고하엿습니다 (로케通信班)

라디오 JODK

衛生講演(二日午後一時十五分) 胃腸의健康의根本
醫學博士 金東益

위와장은음식물을섭취(攝取)하야 소화식혀서 그가운데잇는 영양분(榮養分)을 흡수(吸收)하는 계관으로 위장이 튼튼허고 약한것은 곳전신의건강과 불건강의 갈리는 길이됨으로 엄니다 곳 위장은 몸의활력(活力)을 공급하는 공장(工場)이라고 볼수잇습니다 만약이공장의 생산기능(生産機能)에 쇠퇴해서 몸이 요구하는 수요(需要)에응하지못한다면 몸에고장이 생길것은 물론입니다 건강한몸에잇서서의 위장의긴능—즉 그생리적(生理的)활동을먼저 말슴하고 다음에 우리조선사람에게제일만흔 위장병(胃腸病)의예를들어말슴하고 그 원인과 증세와 또 치료방법을 말슴하라고합니다

라디오

二日(水曜)

◇午前七時五一分 (東)라듸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떡복기』日用品市勢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 歌謠曲(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胃腸은健康의根本』醫學博士 金東益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조흔音樂『拍子의種類』 朴慶浩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三宮先生 ·의不償金而返償法 全聖旭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全體主義의原理』朝鮮日報 咸尙勳
◇同八時 音律 靈山會相中上靈山 中靈山 잔도드리 三絃
◇同八時三〇分 古談『以恩報讐』朝鮮正樂傳習所員 庚秋岡
◇同九時 伽倻琴倂唱 一、短歌 竹枝詞 二、唱調 자、제비路程記 나、夢中歌 李素香 歌手 韓成俊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뉴-스
◇同一〇時 地方으로부터보내는뉴-스

三日(木曜)

◇午前七時五一分 (東)라듸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二六) 宋今璇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 合唱(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合樂 君ケ代 二、管樂 鳳凰吟 三、唐笛獨奏 堯天舜日之曲 四、合樂 海ゆかば 五、笛奏 萬波停息之曲 六、管樂 瑞日和之曲 指揮 雅樂師長 咸和鎭 李王職雅樂部員
◇同一時三〇分 獻詠歌披講式實況(國語)—朝鮮神宮奉賛殿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同六時 唱歌와이야기 一、唱歌 1、君ケ代 2、海ゆかば 3、明治節 4、進軍 5、朝日夕日 協成尋常小學校兒童 피아노伴奏 李善信
◇同六時二五分 이야기『明治節』 宋光勉
◇同六時三〇分 講演『明治天皇의聖德을追慕하야』 高元勳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金花香 金點香 金相淳 金永根 金桂宇 洋琴 大笒 杖鼓
◇同七時五五分 唱劇調 沈淸歌 老人歌 三、短歌 歌手 韓成俊 鼓手 方應敎
◇同八時一〇分 (東)軍歌와吹奏樂
◇同八時四〇分 라디오드라마〃海風〃三景南海村作 —配役— 峯三(젊은어부) 黃澈 龍女(그애인) 車紅女 子(그애비) 金鮮英 父 卞基鍾 母 柳海草 順玉(龍女同生) 金鮮英 萬石(峯三아들) 兪美鈴 黑眼鏡쓴사람 卞基鍾 解說者 韓一松 音樂 胡在晟 青春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
◇同一〇時 노래 演出 效果 李 金 崔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新作唱劇調
【金】【剛】【巡】【禮】……(一)
內金剛歌
萬壽 金錫九

(중모리) 羽調

天地가 剖判後에 金剛山이생겨날제 한덩이 花崗石이 온갓 奇巧로 變化하야 奇奇하고 怪怪하며 尖尖하야 소 - 萬二千 峰峰들이 芙蓉가티 소사낫다 흉융하는 鬱壑이요 주룹살은瀑布라 나는瀑布 急한물파 고흐지내 蕩蕩하이 맛칠의 맛친으로 按排가되엿구나 春日에 고흔꽃과 秋風에 붉은丹楓 綠樹에 陰濃하고 萬壑千峰 積雪들이 철을따라 變幻하니 神妙한 큰造化를 뉘라서 알겟드나 名山도 만타하되 金剛山의 그것가티 온갓條件俱備하고 特絶한 만흔 情景 朝鮮에 第一이요 또한世界에 無雙이라 이러한 큰 造化이 朝鮮에 생겨난것 우리의 幸福이요 알뜰한 天恩이다 눈으로 못볼지라도 귀로듯기라도 하며볼로 밟지못할망정 마음속에 그려보자 忽然이 일어나서 風月鶴어노고 竹杖芒鞋 門弟子로 勝地江山차저올제 압서거니 뒤서거니 斷髮嶺을 올라서서 金剛眞容을 바라보니 玉屑을 묵거세워난듯 異常한 感興之心을 말할수 바이업다 搭百里에 당도하야 向仙橋를 건너오니 보이고 들리는것이 모두다 神奇하다

(중중머리) 羽調

長安寺 드러갈제 雲住門에 못진글씨 一到山門萬事休라 뚜렷이 부럿구나 寧墳에 와인觀瀑 글어넘과 다름업다 百川洞에 맑은시내 長安寺 미드르로 소리치며 흘러간다 帶仙橋를 밟고서서 은은한 樹林中에 隱映하는 金殿碧宇 보고 또보아도 그림속에 그림이다 갈지자 거름으로 어러저러 거러가며 鶴巢를 머지고 두루四面 바라보니 못보든 山비치요 처음보는 石路로다 다른곳에서 못듣던 새소리와 물소리를 이곳와서 처음듯는다 心神이 悅爽하야 막막히 섯노라니 조그만한 上座僧이 아장아장 나오면서 合掌拜禮하는구나 나도또한 答禮하고 長安寺의 기픈歷史 낫낫치 무러보니 親切히 對答한다

(辭說)

長安寺는 新羅法興王때에 創建이읍니다 그러나 이절의 貴한것은 高麗時代에 高麗出身의 貴女로 元나라 順帝皇后가된 奇氏가 皇帝와太子를 爲하야 福利를 祈禱하너라고 巨額의 內帑金으로 이절을 一新하게 重建한것을 一時兵火에 消失이되엿드랍니다 서방잇는 六層七階四樓一門은 그후에 조금식 重興한것이지 나는 感歎을 마지아니하고 다서 못되 金剛山을 차례로求景하자면 어느곳을 먼저보아야합니까하니 그는對答하되 明鏡臺로 가라하고 길을引導하여준다

(갓양) 羽調

그승을 作別하고 明鏡臺를 차저가서 黃泉江에 洗手하고 善惡有無를 비처보고서 業鏡대고 도라가서 太子城으로 도라가니 故國王子 갓곳업고 대궐터만 荒原하다 黃泉江을 차저가서 沃焦臺에 노코어저 第人峰使者峰과 十王峰 判官峰을 歷歷히 들려보고 東北으로 도라나오니 十王百川洞이로다 洞名은 百川이라하엿건만 便으로 殿若臺를 안고가면 四十度頃斜진 石壁으로 水濂이 可觀이로다 百將洞多寶塔을 차례로 다보고서 도라와北으로 올러가서 望軍臺를 바라보니 높다란 白石絶壁에 數百尺長梯道를 달으며 鐵索干 부여잡고 허유허유 올라가서 望軍臺의 絶頂이다 몸이天上에 오른듯 心身이壯快하야 두루四面살펴보니 一萬二千峰 美容들이 눈아래그림것다

(辭說)

新羅敬順王子께서 新羅를 復國하려하시다 本意를 達치못하시고 ……이름인가

에두고 第十景 山外一洞에두고 僧侶法師 이룰수에두어 恒時戴舞의動靜을 보살피게하니 洞名은三佛이요 靈源洞이라 함은이러한關係라한다

(靈源洞)

(麻衣太子)(마의태자)羽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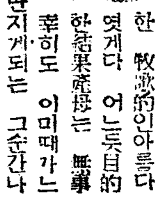
슬프다 王子시여 萬古의 恨事된本國을 復興하시려는 카다란雄志를 뜻하시고 돌아서 麻衣草食으로 金剛山에서 一生을마치섯스니 어찌아니 寒心하오리까 王子殿下의忠節을 어느곳에 吊祭하리요

(중모리)羽調

笑衆을 나리와서 安養庵을 구경하고 七星庵 바라보니 新羅敬順王妃의 出家捷止處라하는 鳴道庵이 그곳이라 鳴淵潭을 지나서 迎仙橋를 건너가서 三佛岩 보온後에 白華庵을 들어가니 西山大師의 靜修處요 觀音峰한 松林中으로 平坦한 길을 밟고 靑鶴峰을 바라보며 含影橋를 건너가니 雄壯한 表訓寺라 彼波樓에 올라안저 道場을 살펴보니 靜肅도 아니하고 淸淨한靈境이다

(寫眞은內金剛表訓寺)

나의하로
姜貞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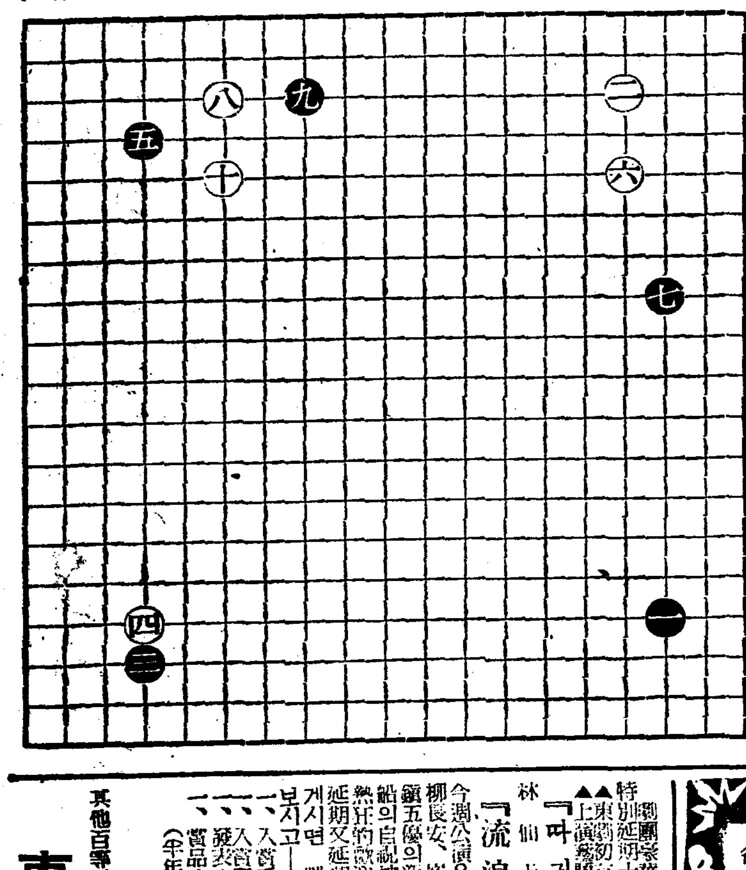


感傷의가을이라 그런지 석천부럽屢屢하엿다 一年에한번도다오는나의 하로인게라 어머님께서 애써만드시갈비찜과 밤송편이 엿전지마시업고…마음은 몹시드설레이엿다 意外로 始興地方에서나를 請하려왓다 套務로『택시』로달려가노라니 車窓을 좌하야 曠野가훨훨 지나간다 진실로 農村의가을은 自然그대로 詩的이오 또 한 牧歌的인아름다운情緖를사어내게하엿게다 어느目的地에이르럿다 助力 한結果産婦는 無事하엿스나 아해는 幸히도 이미가느졋다 무엇때문이지 하필오늘은死胎를만지게되는 그순간나는 내自身도모르게 胎盤이 어이러나섯다 村落에서직도 蕭條機關이設置되지못한것이遺憾이엿다 興奮에잠긴채로 汽車에서나렷슬때는 五色燦爛한네온의 서울의밤거리가요란하엿다 疲勞한몸으로 자리에누엇다 오늘이내生日!나는어머니에게 오늘을感謝하면서 마음으로來日劇研座主催인 新協劇團歡迎會의光景을 想像하면서 寢症을것다

—十月二十二日(生日날)—

國手對抗碁戰 =(1)=
白 閔仲植
黑 權載衡
(四目半込出)

● 一 丙의十六
○ 二 丁의三
● 三 巳의十七
○ 四 巳의十六
● 五 巳의四
○ 六 丁의五
● 七 丙의八
○ 八 卯의三
● 九 丑의三
○ 一〇 卯의五



棋評者更迭

이때까지 本欄의 評文執筆者이던 三玄子는 事情에 依해서 免任하고 今後로는 朝鮮棋界에서 國手의一人이며 特히 棋眼에 高明하기로 有名한 權秉郁氏가 批評하기로되엿다。 氏의 銳利한 評文이 讀者의 노픈期待에 滿足될것을미더마지안는바이다。

菊秋의好對戰
守備에沒頭하는初陣營
權秉郁

今般本社에서 以餘叢秀者로 黍在秋秤之末하야 觀戰記를 쓰도록 命하시니 참으로 感愧無量하외다 然而아프로 잘못된點이 만흘듯하오니 惟願讀者諸氏께서는 잘諒解하시와 倍前愛顧하여주시를切祝합니다

棋界의重鎭인 閔權兩氏가對局挑戰할새 暮性이 서로 長短處가잇서 雄健豪宕한 閔氏와 新進精銳한 權氏는 참그야말로 氷炭間차웅이 버려서 滋味가 一層더 深奧할듯 때마줌 九秋라 돌아때 菊花가 滿開발랄을따라 一擲香氣를보내여 滿座의 心神을 爽快케할도 한興味를 돕는듯 다음 觀戰記를 써보자

黑三巳의十七은 構築邊陣하야 以逸待勞의 暗算

白一〇 卯의五는 鵬搏萬里의 意圖

黑一 白二 各小目은 兩陣布石의 手順이고 黑三(大桂馬)은 邊塁를 深備하야 敵의 疲勞를 기다려 空第에 陷入하도록 暗裡의 一算이며 白四(星點)는 新定石의 一例다 黑五 將星點도 應答의 必然的인 角勢이며 白六(高目)으로서 邀布石의 順割은 바구엿스나 未復合하면 一理가 된다 黑七은 自家를 보리 保障하고 彼陣에侵入할意思이나 아직은 時期尙早인듯하며 白八은 黑의將點을 對峙하여 敵機를 偵察함이니 未來가엇더할지 黑九는 一間挾으로 夾는고보담 二間挾이 조흘줄로 생각한다。 엇재그러나하면 將來의 白軍이 中部로 出陣할 同時에는 自然邊隅와 그二點이 孤單할듯하다 白一〇 跳點이 果然中隅를 衝進하고보니 黑이 不得已 一間挾點을 抛棄할수도업서 두간을 띄워노캐를는지 疑問이다。

白軍은 一〇點을 利用하야 中小隅에 本營을 屯置한바마치鵬새가 長天萬里의 양길을 꾀하게되고 그뿐만아니라 黑左隅의 一將黑點을 隱然中엿보고잇다 아직 初期戰인만큼 彼氏가 守備에 沒頭하고잇스니 風雲은 올때가머다。

比律賓遠征朝鮮代表選拔兼 第五回全朝鮮拳鬪選手權大會
日時 十一月四、五、六日午後七時
場所 太平通 朝鮮日報社 大講堂
申請 十一月二日까지 總督府社會敎育課內同聯盟으로
主催 全朝鮮拳鬪聯盟
後援 朝鮮體育協會 朝鮮日報社

特別延期十一月四日밤까지 劇團豪華船大公演
▲▲上演藝目 東劇初行의熱狂週間 南宮春作 『따귀가한斤』一幕
林仙圭作 『流浪三千里』八場二幕
今週公演은—黃澈、沈影、申佐澈、柳長安、崔承伊、崔溟燕等男女重鎭五十優의新人社로濫充된劇團豪華船의大公演이니 滿都의熱狂的歡迎을 받는 延期又延期!아직도 못보신분이게시면 빨리 보시고—도幸運의一等을타소서
一、入賞者選定…抽籤決定
一、入賞等級…一等부터百等까지
一、發表…大週末로그림裡面
一、賞品…一等一人 定期優待券(半年分) 二等一人同(四個月分) 三等一人同(二個月分) 其他百等까지粗品無漏進呈!!
東洋劇場

松竹映畵 マネキ
二十八日より三日間
◇大船超大作 荒城の月 伏見晁 原作 佐佐木啓祐 演出 佐野周二·高峰三枝子·佐分利信·高杉早苗 主演 荒城のほとりに描き出された藝術と戀の綿繪巻
◇松竹京都特作 次郎吉唄ざんげ 大曾根辰夫 監督 高田浩吉 ボリドル音代三 主演
◇松竹京都特作 退屈男 並木鏡太郎 監督 市川右太衛門 主演
各社ニュース
京城新町 (電話本局五六七七番) 新富座

十一月一日부터四日까지四日間 特別名畵週間 每日晝夜二回晝間一時夜七時始映 特別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 (今週에限함)
大每뉴-스
과社漫畵
◇東寶映畵社特作 エノケン青春醉虎傳 監督 山本嘉次郎氏 主演 榎本健一氏
獨乙トビス社超特作映畵全發聲日本版 國光映畵社提供 アルプス槍騎隊 『祖國을爲하야』改題 監督 헬나크링크라!氏 主演 루이-쓰트렝카氏

十一月一日부터四日까지(四日間) 每日晝夜二回(晝間一時夜間七時始映) 大衆料金階上廿錢階下十錢均一
◇ワーナー社作全發聲日本版 兒童劇 僕は軍人
◇ユナイテッド社特作品 結婚の夜 主演 게리-구바 안나스텐
◇半島映畵社作 漢江 監督 方漢駿氏 主演 尹逢春 李錦龍 玄舜英
次週三特別映畵週間 アルプス槍騎隊 浪華節歌漫畵ニュース 乞期待
桃花町 桃花劇場

映畵は日活 偕樂館
二十七日より封切
◇メトロ社超大作 ドロシイ·アーズナア女史監督 花嫁は紅衣裳 ジョン·クロフォード フランチョット·トーン ロバート·ヤング
◇日活多摩川特作 街の旋風 小杉勇·花柳小菊·見明凡太郎·主演
◇獨シネアリアンツ作 カール·ハートル監督 囁きの木蔭 パウラ·ヴェッセリイ ウイリ·フォルスト グスタフ·グリユンドゲンス 主演 歷史の後には常に佳人の涙がある!これは墺太利ハプスブルグ家の美しき女王マリアルイズの悲戀物語
◇朝日ニュース

三日より特別封切
◇伊太利國策映畵 カルミネ·ガローネ監督 シピオネ アンニバ·ンニキ イザ·ミランダ カミロ·ピロット 主演 伊太利が國家を舉げて製作せる古今未曾有の映畵!世界最高ムツソリーニ賞獲得
◇東寶特作明朗篇 青空二人組 岡田敬 演出 藤原釜足·柳谷寬 山縣直代 主演
◇RKO超大作 偽裝の女 カザリン·ヘプバーン フランチョット·トーン
讀賣·京日·パ社ニュース
平壤·大劇

爆笑隊大公演
十一月一日、二日、三日間 晝夜二回 晝一時 夜七時 料金 三〇、二〇
漫談、漫謠、넌센스、스케치、(寸劇)드라마、喜劇
豪華無數의名드리오!(無順) 孫一平、金允心、申카나리아、宋秋鳳、金元浩、李福本、申銀蓮、朴貞淑、崔仙、朴凝行
金健作 『戀愛合重線』一幕
……喜劇二幕……
『가을의哀愁』一幕
註『夜間은混合되기쉬우니될수잇는대로晝間을만히利用하시기바랍니다』

十月三十一日晝間부터三日間大興行
普通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每日三回興行一回十二時 二回映 三回七時
米國라스방映畵社超特作全發聲日本語版 에도우워거루監督 人類一億年의暴露
米國데유-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하리강스監督 ボルネオの怪獸 종부레스도 主演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佐佐木康 監督 神秘な男 上原謙 主演
松竹大船ナンセンス映畵 齋藤寅次郞 監督 黑豹脫走曲
次週豫告 家庭日記前後篇大會
電話一七五五 第一劇場

日活 日活 日活
十一月一日ヨリ 十一月六日マデ
新商賣往來 1·40 6·10
海底下の科學戰 10·50 3·45 7·05
アトラクション 2·35 8·35
業平の千太郎 12·20 4·50 9·20
アトラクション=コロムビア專屬 金海松
午前中入場者30錢均一
黃金座